

朝鮮時代 서울의 歲時風俗과 놀이

朴京夏 (중앙대 사학과 교수)

목 차

1. 머리말
2. 國家의 歲時儀禮
 - 1) 大祀
 - (1) 社稷祭
 - (2) 宗廟享
 - (3) 永寧殿享
 - 2) 中祀
 - (1) 風雲雷雨城皇祭
 - (2) 先農祭
 - (3) 先蠶祭
 - (4) 雩祀祭
 - (5) 文宣王釋奠祭
 - 3) 小祀
 - (1) 靈星祀
 - (2) 老人星祀
 - (3) 馬祖祀
 - (4) 先牧祀
 - (5) 馬社祭
 - (6) 馬步祭
 - (7) 禡祭
 - (8) 榮祭
 - (9) 酺祭
 - (10) 厲祭
3. 서울의 歲時風俗
 - 1) 春節의 歲時風俗
 - (1) 名節과 節侯
 - (2) 祈豐 祈福 厄막이
 - (3) 時節飲食
 - 2) 夏節의 歲時風俗
 - (1) 名節
 - (2) 厄막이
 - (3) 時節飲食
 - 3) 秋節의 歲時風俗
 - (1) 俗節
 - (2) 茶禮 厄막이
 - (3) 時節飲食
 - 4) 冬節의 歲時風俗
 - (1) 俗節
 - (2) 祈福 厄막이
 - (3) 時節飲食
4. 歲時風俗에 따른 놀이
 - 1) 時節 및 傳承놀이
 - (1) 널뛰기
 - (2) 윷놀이
 - (3) 石戰놀이
 - (4) 踏橋놀이
 - (5) 花柳놀이
 - (6) 觀燈놀이
 - (7) 水岳戲
 - (8) 씨름
 - (9) 그네뛰기
 - (10) 投壺놀이
 - (11) 登高놀이
 - 2) 演戲놀이
 - (1) 楊州別山臺놀이
 - (2) 松坡山臺놀이
5. 맺음말

1. 머리말

세시풍속¹⁾은 해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별한 공감과 보편성을 지닌 생활 행위이다. 그러므로 세시풍속은 주기성을 지녀 해마다 반복되는 時季性과 律動性을 띤다. 또한 세시풍속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도 하며 바로 그것이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의 正體性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의 세시풍속을 통하여 그 시대인들의 삶의 존재양식 및 가치관, 문화적 전통을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서울의 세시풍속을 살펴 보고자 한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으나 서울은 2년간의 도성 건설을 거쳐 태조는 1394년 국도를 개성에서 서울로 천도했다.

세시풍속에 대한 기록은 농가월령류나 고시조, 민요 등에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학적 체계를 갖춘 것으로는 이수광의 『지봉유설』과 정동유의 『주영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세시풍속을 집대성한 기록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반에 걸쳐 저술된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이다.

『京都雜志』는 정조 때의 실학자인 냉재 유득공(1749~?)²⁾이 저술한 서울 중심의 민속지로서 서울의 문물제도와 세시를 기록하였다. 이 책은 한양중심의 민속지이므로 사대부 중심으로 엮었기 때문에 서민층의 생활을 고찰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나, 어느 정도 지역성과 토착신앙의 모습을 보여 준다. 『京都雜志』는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권은 풍속편으로 문물제도를 19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했고, 둘째권에서는 서울의 세시풍속을 元日부터 除夕까지 21항목으로 나누었다.³⁾ 『京都雜志』는 우리나라 최초의 歲時書이나 서문, 발문이 없어 언제 저술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유득공이 18세기 중반에 출생하였으므로 찬술 시기는 18세기 말경으로 추측할 수 있다.

『列陽歲時記』는 김매순이 찬한 것으로 列陽은 한양을 뜻하니 서울의 세시기이다.⁴⁾ 『열양세시기』는 단권으로 저자가 발문(跋文)에 1819년(순조 19) 유두일에 완성한

1) 일년은 春夏秋冬 四時인데 이 사시에는 각 각 孟·仲·季의 구분이 있고 일년은 12개월 한 달은 30일로 나누어진다. 또 15일을 1氣, 한 달을 2氣로 보면 1년은 24절기인데 5일을 1候, 3후를 1기, 6후를 1개월 잡아 1년은 24氣 72候로 구분한다. 이처럼 일년은 여러 개의 월일과 시절의 구성인데 이를 歲時라 한다. 세시의 주된 의미는 節日, 즉 名節이라는 뜻으로 통용되고, 이같은 절일의 풍속을 세시풍속이라 한다.(김명자, 『한국 세시풍속의 사회적검토』, 1990. 참조.)

2) 본관은 문화(文化)로 정조3년(1779)에 규장각 검서(檢書)가 되고 포천, 제천, 양근의 군수를 역임했다. 노후적으로 첨지중추부사를 거쳐 풍천부사를 지냈다. 연암 박지원의 제자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방법으로 산업진흥을 주장한 바 있으며 그의 사망연도는 알 수 없다.

3) ①元日 ②亥日 ③子日 ④巳日 ⑤人日 ⑥立春 ⑦上元 ⑧二月初一日 ⑨寒食 ⑩重三 ⑪四月八日 ⑫端午 ⑬六月十五日 ⑭伏 ⑮中元 ⑯中秋 ⑰重九 ⑱十月午日 ⑲冬至 ⑳臘平 ㉑除夕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내용은 正月에서 12월까지 되어 있다.⁵⁾

『東國歲時記』는 홍석모의 저술로 세시풍속서 중에서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았다.⁶⁾李子有의 序文에 '己酉重陽後日' 즉 헌종15년(1849) 9월 13일로 되어 있어 저술연대를 알 수 있다. 정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의 세시행사를 詳述하였으며 어느 세시서보다 내용이 풍부하다. 『동국세시기』보다 이미 앞서 『경도잡지』와 『열양세시기』가 나온 바 있어 이것들이 저본이 되었을 것이며, 내용에는 『東國輿地勝覽』에서 인용한 부분도 있다.

내용은 윤달을 합해서 13월로 구분하고 23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불분명한 날짜는 월내를 항목으로 설정하여 처리하는 등 세시풍속을 폭넓게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 특징이다.⁷⁾ 홍석모는 우리 세시풍속의 유래를 중국의 『荊楚歲時記』에 비유해서 인용하였으나 중국의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세시풍속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이 1394년에 定都한 후로 한양의 세시풍속을 다룬 본격적인 세시서가 없다가 정조 때인 18세기 말의 『경도잡지』에서 순조 19년의 『열양세시기』를 거쳐 19세기 중엽인 헌종 15년의 『동국세시기』에서 집대성되었다.

서울을 위주로 기록한 세시풍속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위의 3책 세시기를 참고로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제일 상세한 『동국세시기』를 저본으로 하여 서울의 기사를 인용하되 앞의 2책을 참고 비교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2. 國家의 歲時儀禮

서울은 수도이므로 세시풍속에 있어 국가의 세시의례가 행해지는 곳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세시의례는 『國朝五禮儀』, 『經國大典』, 『春官誌』 등을 참고로 하였다.

조선시대의 국가제도는 行政과 儀禮가 일체화된 체제였다. 그리고 전통사회에 있

4) 김매순은 안동인으로 영조 52년(1776)에 태어나 헌종6년(1840)에 죽었다. 자는 덕수이고 호는 문산이다. 영조1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예조참판 강화유수에 이르렀고, 문장이 뛰어났으며 죽은 뒤에 문정(文靖)이란 시호를 받았다.

5) ①立春 ②元日 ③人日 ④上亥日 ⑤上元 ⑥二月 ⑦朔日 ⑧六日 ⑨三月 ⑩寒食 ⑪三日 ⑫穀日 ⑬八日 ⑭端午 ⑮十日 ⑯六月 ⑰十五日 ⑱伏日 ⑲中元 ⑳中秋 ㉑九月 ㉒二十日 ㉓冬至 ㉔十二月 ㉕臘日 ㉖除夕

6) 홍석모는 풍산인(豊山人)으로 자는 敬敷, 호는 陶厓이다. 정조5년(1781) 7월29일에 출생하여 南原府使를 역임하고 철종8년(1857) 10월 19일에 죽었다

7) ①正月 ②二月 ③三月 ④四月 ⑤五月 ⑥六月 ⑦七月 ⑧八月 ⑨九月 ⑩十月 ⑪十一月 ⑫十二月 ⑬閏月

어서의 세시풍속은 농경생활에 바탕을 두었으므로 儀禮와 農業이 일체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서울의 세시풍속에는 당시 제도화된 국가의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歲時에 따른 국가의 의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국가의례는 五禮로 편성되었다. 오례는 유교적 질서하의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제도의 기본 의례절차로서 吉禮, 凶禮, 賓禮, 軍禮, 嘉禮를 말한다.⁸⁾

우리 나라에서는 오례가 고려시대부터 제정되었으며, 이것은 『周禮』적 요소와 唐代에와서 정리된 五禮에 나타난 역사성을 수용한 것이다. 그 분류와 순서는 『周禮』를 따르고, 내용은 『大唐改元禮』를 참고하였다. 조선시대의 오례는 高麗 仁宗대(1122-1146)에 崔允儀에 의해서 정리된 『古今詳定禮』를 참고로 하였다.⁹⁾

이 五禮는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재정리되는데, 유교에 의한 정치이데올로기로서 왕권의 교체를 설명하는 정치적 명분이자 새 정권의 유지를 위한 명분논리로서 강조되었다.

오례는 세조의 명에 의해서 『經國大典』을 완성하고 그 「禮典」의 뒤에 붙이기 위해, 세종 때에 제정한 「五禮」를 기본으로 하되 옛것을 상고하고 모든 일을 시행하여 방해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姜希孟, 成任實 등에 의해서 준비된 것이었다. 도중에 세조가 죽었으나, 이 사업은 계속되어 成宗 5년에 완성을 보고, 그 이듬해에 申叔舟의 손을 거쳐 왕에게 올려져 간행된 것이 『國朝五禮儀』와 『國朝五禮序例』로서, 이때에 조선의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제도의 기본의식이 완성되었다.¹⁰⁾

오례 중 국가 세시의례로는 吉禮를 들 수 있다. 길례란 天·地·神明에게 올리는 모든 제사를 아울러 가리키는 말로, 『周禮』에 의하면 나라의 鬼神紙에게 올리는 것을 祭, 人鬼에게 올리는 것을 享, 文宣王에게 올리는 것을 釋奠이라고 구분하며, 서울과 州縣에 따라 그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 그 대상을 보면, 땅과 농업문화 또는 생활문화를 처음으로 전개했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문명신,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자연 현상을 관장한다고 전해지는 자연신, 국가의 국방 및 행정, 학술 제도와 관계되는 내용을 관장한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신이나 인격신, 그리고 역대 왕조의 시조나 왕가의 조상들인 인격신들이다.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듯하다.

그리고 그 규모에 따라 大祀·中祀·小祀·祈告·俗祭·州縣·士庶人의 7종류

8) 오례의 분류와 내용이 본격적으로 왕실과 국가제도로써 정리되기는 唐 玄宗시대(712-756)에 편찬된 『大唐開元禮』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분류에 있어서 『周禮』와 달리 「凶禮」를 맨 뒤에 두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왕실을 중심으로 한 의식절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9) 李範稷, 『韓國中世禮思想研究-五禮를 중심으로-』(일조각, 1991) 참조.

10) 이범직, 앞 책, 229쪽 - 282쪽 참조.

로 나누었다.

이 중 서울(京都)에서의 의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祀：社稷, 宗廟, 永寧殿

中祀：風雲雷雨, 先農, 先蠶, 雩祀, 文宣王,

小祀：靈星·老人星·馬祖·司寒·先牧·馬社·馬步·榮祭·醮祭·七祀·瀛祭

이 글에서는 『國朝五禮儀』의 구분에 따라 大·中·小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제사에서 日時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일시를 정하는 것에는 일년을 단위로 하여 일년 중 특정일이 되면 자동으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고, 좋은 날을占쳐서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¹¹⁾ 나라의 큰 제사인 宗廟祭享인 경우는 제향일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절기에 순응하는 것이 바른 행례로 여겨졌다.¹²⁾

1) 大祀

(1) 社稷祭

社稷壇은 나라의 땅과 곡식을 맡은 신에게 제사지내는 곳으로, 보통 도성의 서쪽에 설치하며 한성부 儀仁達坊에 있는데 지금의 사직공원 자리이다.

그 규모는 단을 2개로 만들어 社壇을 동쪽에, 稷壇은 서쪽에 배치하여 사방이 각각 2장 5치로 북쪽에서 남으로 향하게 하였고, 높이는 3척인데 사방으로 계단 3층을 쌓았다. 단상에는 각각 2척5치 정도의 石柱가 있다. 社壇에는 國社의 신위를 남쪽에서 북을 향하여 봉안하고 后土神을 배향시켰으며, 稷壇에는 國稷의 신위를 봉헌하고 后稷의 신을 배향시켰다. 1393년(태조2)에 風水學人의 李陽建과 裴尙衷을 시켜 자리를 잡게 하고 이듬해 현재의 자리에 세웠다.

제례는 文廟와 종묘의 예에 따르고 정월 상순 辛日에 풍년을 비는 祈穀祭, 2월과 8월의 상순 戊日에 행하는 中朔, 臘日에 행하는 臘日享이 있다. 그 밖에도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와 가뭄에 비를 비는 祈雨祭 등을 여기에서 지냈다. 또한, 각 지방에도 관아의 서쪽에 사직단을 세우고 치제하여 국태민안과 풍년을 빌게 하였다.¹³⁾

11) 『世宗實錄』 권 128, 「五禮」吉禮 序列

12) 『世宗實錄』 권 47, 세종 12년 3월 정묘.

13) 『世宗實錄』 권 32, 世宗 8년 6월 辛未.

(2) 宗廟享

종묘는 실제로는 조선왕조에서 첫번째가 되는 길례이다. 종묘의례에 따르면 의식의 항목이 사직의 4개항보다 많은 8개항으로서 종묘가 사직보다 정치적으로 우위였다.

조선사회에서는 왕이 나라를 세우고 宮室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宗廟와 社稷을 세워 조상의 은덕에 보답하며, 敬天愛地思想을 만백성에게 널리 알리고, 천지신명에게 백성들의 생업인 농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올렸다.

왕이 도읍을 정하면 궁전 왼편에 종묘를 세우고 오른편에 사직을 세우게 하였다. 조선을 창건한 태조는 松京(松都)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뒤 현재의 종묘와 사직을 세웠다.

종묘제향은 정시제와 임시제가 있는데 大祭로 봉행한다. 정시제는 춘하추동 4계절과 납일에 지냈다. 그리고 나라에 흉사나 길사가 있을 때 마다 임시제인 告由祭를 올렸다. 또 계절따라 햇과일과 햇곡식인 나오면 약식 고유를 하였는데, 이것을 薦新祭라고 하였다.

宗廟 祭禮는 종묘대제에는 왕이 세자와 문무백관·종친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와 친히 제향을 올렸는데 이것을 親行이라 하고, 왕이 유고로 친행하지 못할 때는 세자나 영의정이 대행하였는데 이를 攝行이라 하였다.

(3) 永寧殿享

宗廟의 永寧殿은 조선시대 역대 왕·왕비 및 공신 등의 神主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던 종묘의 일부로서 正殿의 서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別廟이다. 儀禮를 중요시하던 조선시대에는 특히 왕가의 조상신을 제사지내는 종묘를 중요시하여, 건축 형식도 엄격하게 규정된 제도를 따르게 마련이었다. 즉, "天子는 7廟, 諸侯는 5廟"라고 제도화되어 있었고, 이를 원형으로 삼아 종묘가 창건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죽은 왕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건물의 증건이나 신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세종대에 이르러 정종이 죽자 그의 신주를 모실 방이 없어서 이미 정전에 모셔져 있는 4조의 신주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였다. 이때 의논을 거듭하여 정전 서쪽에 별묘를 두는 송나라의 제도가 時宜에 적절하다고 하여 채택하였다.

영녕전향은 정시제를 춘 정월, 하 4월, 추 7월의 상순 2회만 올렸다.¹⁴⁾

14) 『世宗實錄』 권 14, 世宗 3년 12월 기해.

『經國大典』, 『國朝五禮儀』, 『春官通考』 참조.

2) 中祀

(1) 風雲雷雨山川城皇

천신에 해당하는 풍운뇌우와 지신에 해당하는 산천성황신을 합친 것으로 2월과 8월 상순에 제를 지냈다. 단은 남교에 있으며, 중앙에 風雲雷雨神, 왼쪽에 山川神, 오른쪽에 城皇神을 모셨다.

(2) 先農祭

선농은 농업을 생산의 주요 수단으로 하는 이 시대에 처음으로 농사를 가르쳤다고 하는 神農氏에게 드리는 祭享儀禮이다.

先農祭는 매년 경칩이 지난 뒤 첫 亥일의 丑時에 맞추어 베풀었는데 임금이 직접 친림하여 제사를 올리고 손수 籍田을 가는 親耕을 하였다. 때로는 遣官奉行하기도 하였다. 친경을 하고 나면 수행했던 관료와 농민, 거지에 이르기까지 이 제사에 희생된 고기를 더불어 나누어 먹는 勞酒禮를 베풀었다.

東籍田은 서울 동쪽 교외 전농동에 있었고, 西籍田은 開城府 동쪽 교외 전농동에 있었다.¹⁶⁾

(3) 先蠶祭

양잠의 창시자인 중국황제의 원비인 西陵氏를 제사하여 누에농사의 풍년을 빌던 제단이다. 1400년(정종 2) 지금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현 성북국민학교 교정)에 설치되었다. 규모는 2장 3치의 크기에 높이는 2척 7치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선잠은 선잠단 설치 이후 매년 3월 뱀날에 제사를 지냈으며, 1908년 7월 이후에는 잠신의 신위를 사직단으로 옮겼다. 한편 조선시대의 농서를 보면 잠신에 대한 제사는 일반 양잠농가에서도 시행되었다. 제일은 정월 5일이며 잠실의 정남향 쪽에 잠신을 모시고 떡과 茶, 그리고 향을 갖추어 제사를 지냈다.¹⁷⁾ 선잠제를 통하여 의례적인 면보다는 현실적으로 양잠기술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4) 雩祀

雩祀壇은 가뭄이 계속될 때 하늘에 비를 빌어 풍년이 들도록 기원하던 제단이다. 사방 6.9m, 높이 0.75m로 서울의 東郊에 있었다. 단에는 동방 목기의 正神인 句芒,

15) 『世宗實錄』 권 84, 世宗 21년 正月 乙未.

16) 『世宗實錄』 권 27, 世宗 7년 2월 을사.

17) 『世宗實錄』 권 78, 世宗 19년 9월 을미.

남방 화기의 정신인 后土, 서방 금기의 정신인 옥수, 북방 수기의 정신인 玄冥과 곡식을 맡은 신인 后稷을 치제하며 신좌는 모두 북에서 남으로 향하고 있다. 정례의 행사는 中祀로 음력 4월에 날을 가려서 행하고 기도와 고유는 상황에 따라 小祀로 행한다. 행사에 있어서는 국왕의 친제와 제관을 파견하는 대제가 있고, 제례에는 軒架·登歌·文舞·武舞 등이 동원되어 성대히 행한다.¹⁸⁾

사실 기우를 위한 행사는 단순히 기우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유교문화의 예론에 입각한 현실정치 전반에 걸친 自省의 기회임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5) 文宣王釋奠祭

문묘는 유교를 집대성한 공자를 받드는 廟宇이다. 아울러 그의 제자인 顏子·曾子·子思·孟子를 배향하고 孔門十哲 및 宋朝六賢과 우리 나라의 신라·고려·조선조의 명현 十八賢을 從祀하여 대학생들의 師表로 삼았다. 중앙에는 성균관, 지방에는 각 향교에 建置하고 있다. 조선조에서는 공자를 正位로 하여 四聖과 공문10철, 송조6현을 大成殿의 좌우에 배열, 배향하고 동무(東蕪)에 중국의 명현 47위와 우리나라의 명현 9위를 종사하였다. 이곳에서 해마다 봄 음력 2월과 가을 음력 8월의 상정일에 석전제를 올렸다.¹⁹⁾

문묘는 儒者들의 최고의 先儒인 孔子를 통한 유신들의 정치력의 표상인 셈이었다.

3) 小祀

(1) 靈星祀

靈星壇은 새해 농사가 잘 되도록 곡식을 맡은 별과 농사를 맡은 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만든 제단이다. 風雲雷雨와 霽祀 등을 지내는 壇과 같이 서울의 南郊에 있었다. 靈星壇의 설치는 고려 때 처음 시작된 것이며 조선에서도 고려의 遺制에 따라 한양천도 후에 南郊에 설치하고 立秋 후에 辰日을 정일로 하여 제사를 지냈다. 단 위에는 영성의 신좌와 용의 왼쪽 뿔이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안치되어 있다. 용의 왼쪽 뿔은 하늘의 농지와 주곡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상에서도 풍년이 들도록 기원하는 뜻에서 숭배하였다.²⁰⁾

18) 『世宗實錄』 권 36, 世宗 9년 6월 병인.

19) 『世宗實錄』 권 119, 世宗 30년 2월 임오.

20) 『經國大典』, 『國朝五禮儀』, 『春官通考』 참조.

(2) 老人星祀

노인성제는 수명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노인성에게 드리는 제례로 중국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도 道教系統과 郊社系統의 두 가지 제례가 행해져왔다. 노인성은 南極星·壽星·岬老人·남극노인 등의 명칭이 있는 별로서, 아르고(Argo:龍骨座) 자리의 첫 별이며 광도가 가장 높은 카노푸스(Canopus)별이다. 『사기』의 天官書에 따르면, 이 별이 보이게 될 때에는 나라가 편안해지고 군주의 수명이 연장되는 반aus, 보이지 않게 될 때에는 전란이 일어난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춘분 새벽과 춘분 저녁 때 南郊에서 그 출현을 기다렸다.

교사계통의 제사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특히 활발하게 시행된 것은 중국에서는 후한 때부터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주로 행해졌다. 1411년(태종 11) 正月에 태종 자신이 노인성제의 절차와 노인성단의 축조를 결정하고, 매년 秋分에 한 차례씩 제사를 하되 소를 희생으로 하여 燔祭를 올리도록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소를 진설하기만 하고 번제를 올리지는 않았으며 제사도 春分·秋分 두 차례씩 지냈던 데 비하여, 태종 때에 와서는 노인성제를 교사계통의 제례로 철저히 바꾼 것이다. 세종 때에도 노인성단의 개수문제가 거론되었으며,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한성부 승례문 밖 屯地山에 노인성단이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²¹⁾

(3) 馬祖祀

마조단은 말의 돌림병을 예방해 달라는 목적으로 말의 조상인 天駟星을 제사지내던 단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살곶이다리 서쪽 언덕 위에 있다. 기록에 의하면 단을 설치하고 馬祖祭를 실시한 것은 조선 헌종 때에 보이며, 1749년(영조 25)에는 牛疫이 유행하여 살곶이 牧場 안에 단을 쌓고 先牧을 제사하였는데 位版은 奉常寺에서 만들었다고 하며 각 고을에도 단을 만들어 선목의 신위를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여 재앙과 여역을 몰리치게 하라는 기록이 있다. 그 뒤 1796년(정조 20) 정월에 마조제는 이 해부터 仲春의 中氣 후 剛日 중 吉日을 택하여 지내게 하였다.²²⁾

(4) 先牧祀

처음 사람에게 목방을 가르친 자에게 올리는 제사로 仲夏 中氣 後 剛日에 제를 올렸으며, 東郊에 배향되었다.²³⁾

21) 『經國大典』, 『國朝五禮儀』, 『春官通考』 참조.

22) 『世宗實錄』 권 128, 吉禮 序列 神位

23) 『世宗實錄』 권 128, 吉禮 序列 神位

(5) 馬社祭

처음으로 말을 탄 사람을 모시는 제로 仲秋 中氣 후 剛日에 제를 올렸으며, 東郊에 모셔졌다.²⁴⁾

(6) 馬步祭

말에게 재해를 입히는 신에게 지내는 제사로 仲冬 中氣 후 剛日에 제를 올렸으며, 東郊에 모셔졌다.²⁵⁾

(7) 禡祭

군이 출정할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줄 것과 군대의 안전을 위하여 군신으로 받아들여지는 蚩尤神에게 지내는 제로 東北郊에 모셔졌다. 출정 하루 전에 행해지며 국왕이 친제하는 것을 상례로 했다. 1689년(숙종 15) 봉상시 제조 李宇鼎의 주청으로 폐지되었다.²⁶⁾

(8) 榮祭

장마가 연일 계속되어 피해가 예상될 때 국가에서 비가 멎기를 빌던 제사이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된 농경의례의 하나로 주로 입추 뒤까지 장마가 계속될 때 행해졌다. 음력 7, 8월에 가장 많이 행해졌고 그 다음이 6월이고 그 밖에 특별한 때에도 지냈다. 제의는 도성 4대문에서 많이 행해졌다. 이 때 堂下 3品官이 참여했다.²⁷⁾

(9) 酺祭

사람과 사물에게 災害를 주는 신에게 액을 막고 복을 줄 것을 빌던 제사이다. 서울에서는 馬步壇에서 지냈다. 곡식에 蟲災가 들 무렵에 지냈다. 당시에는 총재가 발생하는 것을 신의 조화로 받아들였다. 정월 첫 丁日에 제를 올렸다.²⁸⁾

(10) 癘祭

癘鬼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여귀란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 命대로 살지 못하여 제

24) 『世宗實錄』 권 128, 吉禮 序列 神位

25) 『世宗實錄』 권 128, 吉禮 序列 神位

26) 『經國大典』, 『國朝五禮儀』, 『春官通考』 참조.

27) 『春官志』 권 1, 『享祀總載』 榮祭條 참조.

28) 『世宗實錄』 권 128, 吉禮 序列 神位. 『春官通考』 참조.

사를 받을 수 없는 無祀鬼神을 말한다. 이 귀신들이 돌아다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고 여겨 이 제사를 미리 지내줌으로써 탈을 막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예조에서 祀官을 파견하여 매년 2회 7월 15일, 10월 15일에 北郊에 있는 여단에서 제를 올렸다.

여제신좌와 성황신좌는 단위에 모시고, 제사지내는 사람이 없는 귀신은 단 아래에 좌우로 마주 보게 하였다.

왼쪽에 병사의 칼에 맞아 죽은 자, 수화나 도적을 만나 죽은 자, 남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뺨박을 당해 죽은 자, 남에게 강제로 처첩을 빼앗기고 죽은 자, 형벌과 화를 당해서 억울하게 죽은 자, 천재나 역질을 만나서 죽은 자의 신위를 모셨다.

오른쪽에는 맹수나 독충에게 해를 입어서 죽은 자, 열고 굶주려 죽은 자, 전쟁에 죽은 자, 위급한 일을 당해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 담이나 집에 치어 죽은 자, 난산으로 죽은 자, 벼락맞아 죽은 자,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은 자, 죽은 뒤에 자손이 없는 자의 신위를 모셨다.²⁹⁾

국가의례의 齋官으로는 왕 이하 대소 관원이 참가하는데, 왕이 初獻官으로 참가하지 못할 때에는 정일품이 攝事로 행한다. 또한 왕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초헌관을 맡으며, 亞獻官은 왕세자, 終獻官은 영의정이 맡게 되어 있으며, 초헌관이 왕세자일 때에는 아헌관은 領議政, 종헌관은 議政을 맡는 것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攝事 議로 행할 때에는 아헌관과 종헌관은 각각 정2품과 정3품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왕이 재관으로 참여하는 의례와 그렇지 않은 의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왕·왕세자·영의정이 참여하는 의례 : 社稷, 宗廟, 文昭殿, 先農, 釋奠

왕·왕세자·의정이 참여하는 의례 : 懿廟, 山陵

왕세자·정2품·정3품이 참여하는 의례 : 釋奠

정1품·정2품·종2품이 참여하는 의례 : 永寧殿

각각의 의례에는 香祝을 전하는데, 大祀인 社稷, 宗廟, 永寧殿과 中祀인 風雲雷雨, 先農, 先蠶, 雩祀, 釋奠에는 왕이 친히 향축을 전하고, 나머지 중사 이하는 承旨가 대신 전한다.

五禮는 왕권을 정점으로 하여 왕에게 최고의 권위를 향유토록 한 의례체계이다.

그 중 吉禮는 諸神에 대한 이들 神位에게 儀禮를 행례할 때 국가를 대표하여 왕만이 국가의 안녕을 기구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었다.

29) 『世宗實錄』 권 128, 吉禮 序列 神位

월	대 사	중 사	소 사
1월 맹춘	정조 : 종묘향 영녕전향 상순 : 종묘사시향(배향, 공신제, 칠사-사명 제, 사호제), 여녕 전사시향	삭일 : 문선왕전향	
	망일 : 종묘향	망일 : 문선왕전향	
2월 중춘	삭일 : 종묘향 상술일 : 사직제	삭일 : 문선왕전향 상순 : 풍운뇌우산천성 황사	
	망일 : 종묘향	망일 : 문선왕전향 경칩후 길해일 : 선농향	경칩 : 독신제
			중기후강일 : 선목사
3월 계춘	삭일 : 종묘향 한식 : 종묘향	삭일 : 문선왕전향 길사일 : 선잠향	춘분개빙 : 사한향, 포제 청명 : 여제(3일전 성황 받고)
	망일 : 종묘향		
4월 맹하	삭일 : 종묘향 상순 : 종묘사시제(배향공 신제, 칠사-사조제)	삭일 : 문선왕전향 상순 : 우사제	
	망일 : 종묘향		
5월 중하	삭일 : 종묘향 단오 : 종묘향	삭일 : 문선왕전향	
	망일 : 종묘향	망일 : 문선왕전향	
			중기후강일 : 선목사
6월 계하	삭일 : 종묘향	삭일 : 문선왕전향	토왕일 : 칠사-중류제
	망일 : 종묘향	망일 : 문선왕전향	

월	대 사	중 사	소 사
7월 맹추	삭일 : 종묘향 상순 : 종묘사시향(배향 공신향, 칠사-국 문제, 공려제) 영 녕전사시향	삭일 : 문선왕전향	
		망일 : 문선왕전향	망일 : 여제(3일전에 발 고성황) 입추후진일 : 영성사
8월 중추	삭일 : 종묘전향 상술일 : 사직제	삭일 : 문선왕전향 상순 : 풍운뇌우산천성 황제 상정일 : 문선왕석전향	
	추석 : 종묘향	망일 : 문선왕전향	
			추분 : 노인성사 중기 후 강일 : 마사제
9월 계추	삭일 : 종묘향	삭일 : 문선왕전향	
	망일 : 종묘향	망일 : 문선왕전향	
10월 맹동	삭일 : 종묘향 상순 : 종묘사시향(배향 공신향, 칠사-국 행제)	삭일 : 문선왕전향	1일 : 여제 상강 : 독신제
	망일 : 종묘향	망일 : 문선왕전향	
11월 중동	삭일 : 종묘향	삭일 : 문선왕전향	
	망일 : 종묘향	망일 : 문선왕전향	
	동지 : 종묘향		중기후강일 : 마보제
12월 계동	삭일 : 종묘향 납일 : 사직제	삭일 : 문선왕전향	장빙 : 사한, 포제
	망일 : 종묘향	망일 : 문선왕전향	

3. 서울의 歲時風俗

세시풍속을 월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크게 4계절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세시풍속 행사는 1년 한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므로 주로 새해의 출발인 정월에 많이 있다.

1) 春節의 歲時風俗

춘절은 음력 1월에서 3월까지 孟春·仲春·季春으로 나뉜다. 이 시기는 豫祝의 意味의 세시풍속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다가올 일년의 풍요와 안녕을 미리 축원하는 때이다. 24절기 중 立春·雨水·驚蟄·春分·清明·穀雨가 들어 있다.

(1) 名節과 節侯

가. 正朝賀禮

정초와 동지에는 국가의 의식절차에 따라 왕이 賀禮를 받았다. 이 때 議政大臣은 모든 관원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가 새해문안을 드리고 箋文과 表裏³⁰⁾를 바치고 政殿의 뜰로 가서 朝賀를 올린다. 팔도의 관찰사, 병사나 수사, 이름이 있는 고을의 목사도 전문과 방물을 바치며 주·부·군·현의 戶長吏도 모두 와서 반열에 참례하였다.³¹⁾ 궁중에서 왕은 신하의 하례를 받되 그 날에 日食이 있는 경우에는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

『열양세시기』에 의하면 "대궐 안의 궁전 근처에서는 각각 세 번 대포를 놓아 큰 소리를 내고 外邑의 宮府에서는 광대와 傀儡의 탈을 쓰고 바라를 울리며 곤봉을 휘두르고 호령을 하며 무엇을 몰아내는 형상을 하면서 두루 몇 차례를 돌다가 나아간다"³²⁾ 고 하여 악귀를 쫓는 儺禮儀式과 비슷한 행사를 하였다.

동지에도 전문을 올리는 행사를 하였다.

나. 正朝茶禮·歲拜·德談

서울 풍속에 이날 아침 일찍 세찬과 세주를 마련하여 사당에 제사지내는 것을 正

30) 전문은 신년을 하례하는 내용의 글로 漢文體(漢文體)의 일종이다.

표리는 시골에서 잔 거친 흰 무명이나 흰 명주로, 이런 하찮은 물품을 올리는 것은 질박한 기풍을 나타내는 동시에, 시골 농촌의 기분을 궁중에 전하는 뜻도 된다.

31) 洪錫謨, 『東國歲時記』, 「正月」

32) 金邁淳, 앞 책

朝茶禮라 한다. 사당은 지손은 모시지 않고 장손이 모시는데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4대까지 모셔 제사하고 보통제사 때에는 당해 조상에게만 제사 한다.

『東國歲時記』에 의하면 최식이 「月令」³³⁾에서, "설날 조상에게 깨끗한 제사를 올리고 椒栢酒³⁴⁾를 마신다." 고 했는데, 이것이 세주(歲酒) 세찬(歲饌)의 시초이다

남녀노소가 모두 새 옷을 입는 것을 설빔이라 한다. 그리고 두루 친척이나 이웃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절을 하는 것을 세배라 한다. 또 손님이 오면 술과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을 세찬이라 한다.

설날부터 3일 동안은 시내의 모든 남녀들이 왕래하느라고 떠들썩하고 울긋불긋한 옷차림이 길거리에 빛나며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웃으면서 "새해에 안녕하십시오"하고 좋은 일을 들추어 하례한다. 예컨대 아들을 낳으시라든지, 승진하시라든지, 병환이 꼭 나으시라든지, 돈을 많이 벌라든지 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남의 바라는 바를 말하는 것을 덕담이라 한다.

歲首가 되면 서울과 지방의 조관과 명부로서 70세 이상 된 사람에게는 새해에 쌀, 물고기, 소금 등을 내리는 것이 통례다. 90이면 한 등급을 올려 주고, 나이 백 세가 되면 특히 한품계를 승진시켜 준다.³⁵⁾ 이렇게 매년 연초에 노인들에게 계급을 승진시켜 자격을 주어 노인을 우대하고 존중하여 정치에 관여하게 하는 성대한 의식을 베풀었다.

사돈간에는 부인들이 근친하는 뜻으로 하녀를 서로 보내어 새해 문안을 드리는데 이 하녀를 問安婢라 한다.

李光呂의 시에 "뉘 집 문안비가 문안하려고 뉘 집으로 들어가는고?"³⁶⁾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문안비를 말하는 것이다.

각 관청의 胥隸와 각 영문의 校卒 등은 종이를 접어 이름을 쓴 명함을 관원이나 선생의 집에 드린다. 그러면 그 집에서는 대문 안에 옷칠한 쟁반을 놓아 두고 이를 받아들인다. 이것을 세함이라 한다. 각 지방의 관청에서도 그렇게 한다. 王錡³⁷⁾의 『寓圃雜記』에, "서울풍속에 매년 설날이면 주인은 모두 하례하러 나가고 다만 백지로 만든 책과 붓 베틀만 책상 위에 배치해 두면 하례객이 와서 이름만 적을 뿐 환영

33) 중국 후한때 사람. 자는 子真. 일명 台. 호는 元始. 어려서 책에 파묻혀 있다가 桓帝 때 효성으로 뛰어난 郎이 되었다. 당시의 수습책 수십조를 논술하여 政論이라 했다. 후에 議郎이 되어 東觀에서 저작 생활을 했다. 그 후 五原太守가 되어 정치를 잘했다. 군사를 잘 기르고 방비책을 잘 세워 오랑캐가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 뒤에 尚書가 되었다가 그만두고 돌아오자 곧 죽었다. 저서 15권이 있다. 『월령』은 『四民月令』의 준말로 土·農·工·商 四民의 연중행사를 서술한 책

34) 술의 한가지. 후추 일곱개와 측백(側栢)의 동향(東向)한 잎 일곱개를 한 병 술에 담가서 우린 술.

35) 洪錫謨, 앞 책

36) 위 책

37) 중국 명나라 장주 사람. 자는 원우(元虞). 별호는 몽소도인(夢蘇道人). 『우포잡기(寓圃雜記)』의 저자

환송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이것이 곧 세함의 시초다.³⁸⁾

다. 人日

이 날은 銅人勝을 閣臣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것은 작고 둥근 거울인데 자루가 달리고 뒤에 신선을 새겼다.

『동국세시기』에 보면 "수나라 유신의 아내 진씨가 인일에 동인승을 올리는데 흑비단실을 잘라 혹은 금박을 새겨 장식하여 만들었다." ³⁹⁾ 고 했다. 오늘날의 동인승도 이것을 모방한 것이다.

나라에서는 제학을 부르게 하여 科擧를 실시하라고 한다. 이것을 人日製라 한다. 太學의 圓點을 얻는 유생에게 시험하는데 食堂에 참석한 지 만 30일의 원점이 되면 처음으로 시험을 보도록 한다. 그들에게 詩·賦·表·策·箴·銘·訟·排律 등 각 문체를 마음대로 시험에 내게 하여 1등한 자에게는 賜第도 내리며 發解한 자도 시상하는데 差等이 있게 준다. 성균관과 문묘에서 시행하기도 하고 대궐 안에서 임금이 친히 시험하기도 한다. 또는 지방의 유생도 불러 함께 보이기도 한다. 명절날 선비를 시험하는 것은 인일로부터 시작하여 3월 3일, 7월 7일, 9월 9일에 행하는데 모두 인일제를 모방한다. 이런 것을 節日製라 했다. ⁴⁰⁾

정초에는 남의 집에 가서 자지 않는데 특히 7일 인일에는 외숙하지 않았다. 이 날 손이 와서 목고 가면 그 해는 연중 불운이 든다고 했다.

라. 上亥日·上子日

상해일은 돼지의 날이요, 상자일은 쥐의 날이다.

조선시대 때 행사 중에 궁중에서 나이가 젊고 지위가 낮은 환관 수백명이 횃불을 땅 위로 이리저리 내저으면서 "돼지주둥이 지진다"하며 돌아다녔다. 또 곡식의 씨를 태워서 주머니에 넣어 재신과 근시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모두가 풍년을 비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로부터 해낭, 자낭의 명칭이 생겼다. 그런데 이 해낭과 자낭은 둘 다 비단으로 만들었는데, 해낭은 둥글고 자낭은 길다. 건릉이 등극하시자 이 제도를 복구하여 이런 주머니를 나누어 주었다. 상자일에 시골에서는 또 콩을 볶으면서 주문을 외는데, "쥐 주둥이 지진다" "쥐 주둥이 지진다"고 하였다.

상해일에 팔가루로 세수를 하면, 얼굴이 희어진다고 한다. 돼지의 얼굴 빛이 검기 때문에 반대로 그 뜻을 취한 것이다.⁴¹⁾

38) 洪錫謨, 앞 책.

39) 洪錫謨, 위 책

40) 金遇淳, 앞 책 洪錫謨, 앞 책

41) 洪錫謨, 앞 책

정월 첫 해일을 돼지날, 첫 자일을 쥐날이라 한다.

조선시대의 고서에 궁중에서 나이가 젊고 지위가 낮은 환관 수백 명이 햇불을 이어 땅에 끌면서 "돼지 주둥이 지진다", "쥐 주둥이 지진다" 하며 돌아다녔다. 그리고 곡식의 씨를 태워 주머니에 넣고 그것을 재신과 근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는 풍년 들기를 비는 뜻을 보인 것이다.

쥐날에는 시골에서는 콩을 볶으면서 "쥐 주둥이 태운다", "쥐 주둥이 태운다"고 주문을 한다.

돼지날에 팔가루로 세수를 하면 검은 것이 희어진다. 돼지의 빛깔이 검으므로 반대로 그 뜻을 취한 것이다.⁴²⁾

마. 卯日 · 巳日

묘일을 토끼날이라 한다. 이 날 새로 뽑은 실을 토사(투스)라 한다. 이 실을 주머니 끝에 달아 매어 재앙을 물리친다. 남의 식구와 나무로 만든 그릇을 들여오지 않고, 특히 여자가 집에 먼저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

사일에는 이발을 하지 않는다. 뱀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바. 立春

입춘은 24절기의 하나로 봄으로 접어든다는 절후이다. 음력으로는 절기의 차이가 심하여 그 해 입춘이 선달에 들기도 하고 정월에 들기도 하며, 정월과 선달에 거둬 들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再逢春이라 한다.

대궐 안에서는 춘첩자를 붙인다. 경사 대부와 일반 민가 및 상점에서도 모두 춘련을 붙이고 송축한다. 이것을 춘축이라 한다.

관상감에서는 朱沙로 벽사문을 써서 대궐 안으로 올린다⁴³⁾. 그러면 대궐 안에서는 그것을 문설주에 붙인다.

지금은 이것이 입춘날의 부적이 되었으며 단오날에도 이것을 붙인다.

건륭 때에는 『은중경』의 진언을 인쇄하여 나누어 주고 문에 붙여 액을 막도록 했다.⁴⁴⁾

지금 이용하는 春帖에는 ⁴⁵⁾ 댓구어를 쓰고 있다.

42) 柳得恭, 『京都雜誌』

43) "갑작은 흥할 늪을 먹고, 필위는 호랑이를 먹고 웅백은 산과 못의 귀신을 먹고, 등간은 상서롭지 못한 것을 먹고, 남제는 재앙을 먹고, 백기는 관수를 먹고, 강랑과 조명은 함께 책살당한 귀신과 기생하는 귀신을 먹고, 위수는 관이란 것을 먹고, 착단은 큰 것을 먹고, 궁기와 등근은 함께 벌레를 먹는다. 대저 열두 신을 부려 흉악한 것을 쫓아내게 하고, 너의 몸뚱이를 어르고, 너의 사지를 때고, 너의 살을 베고, 너의 폐장을 도려내게 하리라. 만일 네가 급히 가지 않아 늦으면 이들의 양식으로 만들리라. 빨리빨리 법대로 시행하였다."

44) "나무 사만다 못다남 음 아아나 사바하"

여염집의 기둥이나 문설주에는 두루 대련을 많이 쓴다.⁴⁶⁾ 또 문이나 문설주에 붙이는 단첩(단구로 된 첩자)이 있다.⁴⁷⁾

사대부 집에서는 흔히 새로 지어 붙이거나 혹은 고인의 아름다운 글귀를 따다가 쓴다.

여염집과 시장, 가게에서는 모두 종이를 잘라서 '立春大吉'이라고 쓰고, 그것을 기둥이나 문설주에다 붙인다. 혹 그렇게 쓰지 않고 시나 사를 써서 축복하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것은 궁전의 춘첩자의 예와 같다.

사. 上元

정월 15일을 상원 또는 대보름이라 하며 설에 시작되었던 歲首名節의 끝이기도 하다. 보름 행사는 15일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14일에 시작된다. 상원날은 새해 들어 첫 滿月の 날이다. 고대사회에 있어 달은 고마운 존재이고 만월 밤은 飲酒·飽食·歌舞하는 일이 많다. 달밤에 사람들이 모여 즐다리기·石戰·踏橋·원노름·달집 태우기·地神밧기·진대끝기 등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새해 첫 만월을 반기며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고 흥겨워했다.

서울은 대보름날 저녁 달이 동쪽에서 솟아오를 때면 사람들은 달맞이를 위하여 산에 올라간다.⁴⁸⁾ 한겨울이라 춥긴 하지만 햇불을 만들어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먼저 달을 보기 위해서 산길을 따라 산에 오르는 것이다. 동쪽 하늘이 붉어지고 대보름달이 솟을 때에 햇불을 땅에 꽂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제각기 기원을 한다. 농부는 풍년 들기를 빌고, 도령은 과거에 급제할 것을 빌고, 총각은 장가들기를, 처녀는 시집가기를 기원한다. 그러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대보름달은 될 수 있는 대로 남보다 먼저 보는 것이 길한 것으로 여겨 서로 앞을 다투어 산에 올라간다.

45) 洪錫謨, 앞의 책

門神戶靈 呵咎不祥
國泰民安 家給人足
雨順風調 時和年豐

46) 洪錫謨, 앞의 책

壽如山 富如海
去千災 來百福
立春大吉 建陽多慶
堯之日月 舜之乾坤
掃地黃金出 開門百福來
天增歲月人增壽 春滿乾坤福滿家

47) 洪錫謨, 앞 책

春到門前增富貴 春光先到吉人家
上有好鳥上和鳴 一春和氣滿門楣
一振高名滿帝都

48) 金遇淳, 앞 책

아. 춘기 문묘 석전

2월 上丁日은 2월달의 처음 丁日에 당하는 날로서 해마다 이 날이 되면 서울을 비롯하여 각 지방 文廟에서 祭享을 지낸다. 이것을 '春期文廟釋奠'이라고 한다.

문묘란 공자 및 기타 儒賢의 位牌를 奉安한 곳으로서 대개 각 郡에는 하나씩 있으며, 이 문묘 釋奠은 봄, 가을 두 차례 행하는데, 가을에는 8월 上丁日에 지낸다.

자. 한식

도시 풍속에 산소에 올라가 제사를 올리는 것은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의 네 명절에 행한다. 술, 과일, 포, 식혜, 떡, 국수, 탕, 적 등의 음식으로 제사드린다. 이것을 절사(명절 제사)라 한다. 집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한식과 추서에 가장 성하다. 그리하여 사방 교외에는 남녀들이 줄을 지어 끊이지 않았다.

농가에서는 이 날부터 채마전에 씨를 뿌리기 시작한다.⁴⁹⁾

서울 사람은 성묘를 하는데 설날, 한식, 단오, 중추의 네 명절에 행한다. 한식과 중추에 가장 성하다. 사방 교외에는 남녀들이 끊이지 않았다.⁵⁰⁾

(2) 祈豊 · 祈福 · 厄막이

가. 祈豊

임금은 매양 설날이 되면 농사를 권장하는 윤음을 친히 지어 팔도 관찰사와 각도 유수에게 내렸다. 입춘날에 관대한 교서를 내리던 일과 같은 뜻이다.

짚을 묶어 깃대 모양을 만들고 장대 끝에 붙들어 매어 집 곁에 세우고 새끼를 내려 뜨려 고정시킨다. 이것을 禾積이라 한다. 정월 보름날 궁궐 안에서는 빈풍 7월의 경작 수확의 형상을 모방하여 좌우로 나누어 힘을 겨룬다. 이것 또한 풍년 들기를 비는 뜻이다.

과일 나무의 갈라진 가지에 돌을 끼워 두면 과일이 풍성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嫁樹(과목 시집보내기)라 한다.

서광계의 『농정전서』에는 "오직 오얏나무만 이런 법을 쓴다"고 하였다.

2월에는 농사를 시작하는 달이라 농경과 관련 풍속이 많다.

『京都雜誌』 2월 초하루조에, "正祖 丙辰년에 중화척을 재상과 시종하는 신하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자는 반죽 및 붉은 나무로 만들었다. 중국의 中和節의 옛일을 시행한 것이다."⁵¹⁾ 하였고, 『東國歲時記』 2월 초하루조에는 "생각컨대, 李泌의 正月奏

49) 洪錫旗, 앞의 책

50) 金遇淳, 앞의 책.

51) 柳得恭, 앞의 책

에 정월 그믐날로 명절을 삼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청하읍건대 2월 초하루로 중화절을 삼아 百官으로 하여금 農書를 올리게 하고, 힘써야 할 근본을 나타내게 하십시오 하였다. 자를 나누어 줌이 바로 이런 뜻이라고 한다." 하였다.

2월 6일에는 농가에서 초저녁에 묘성(좁생이)과 달과의 거리의 원근을 보아 그 해의 일을 점친다. 이 별이 달과 나란히 가거나 촌척 이내의 거리를 두고 앞서 가면 길하고, 만일 앞이나 뒤로 너무 멀리 떨어져 가면 그 해에는 흉년이 들어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한다. 징험해 보니 제법 맞는다고 한다.⁵²⁾

초저녁에 삼성이 달 앞에서 고삐를 끄는 것같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풍년이 들 징조라 한다. 최식의 『농가언』에 '2월의 황혼, 삼성의 저녁' 이라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⁵³⁾

淸明에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에서 불을 일으켜 각 청에 나누어 준다. 농가에서는 이 날부터 비로소 봄갈이가 시작된다.

나. 祈福

대궐 안에서는 첫 번 亥日과 子日이 되면 각색 비단으로 차는 주머니를 만드는데 각색 실로 만든 끈을 꿰고 술을 길게 아래로 내려뜨린 것이 마치 큰 나비같다. 이것을 설날 문안드리러 온 근신, 공경대부, 재상 등에게 나누어 준다. 이 행사의 유래는 매우 오래 되었으나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해와 지는 십이지의 끝과 처음이므로, 이날 주머니를 만드는 것은 그 한 해 동안의 복록을 그 주머니에 담는 뜻이라 한다.

새해 꼭두새벽에 거리로 나가 어떤 방향에서 들려오는지 관계할 것 없이 처음 들려오는 소리로 일년 간의 길흉을 점치는데, 이를 청참이라 한다.

오행점을 쳐서 새해의 신수를 점친다. 오행점에는 각기 다른 점사가 있다. 나무에 금, 목, 수, 화, 토를 새겨 장기쪽 같이 만든다. 그것을 일시에 던져 그것들의 젓혀지고 엮어진 것을 보고 점괘를 얻는다.

여러 절의 상좌중이 재 올릴 쌀을 오부 내에서 빌기 위하여 새벽부터 바랑을 메고 돌아다니면서 문 앞에 와 소리를 지르면 인가에서 각기 쌀을 퍼다 준다. 이는 새해의 복을 맞는 뜻이다.

무명실을 자아 옷을 지으면 길한 징조가 나타난다 하여 부인들은 정월 보름날 만든 실을 서로 선물한다.

새벽에 종각 네 거리의 흙을 파다가 부뚜막을 바르면 재물이 모인다고 한다.

52) 金遇淳, 앞의 책

53) 洪錫謀, 앞의 책

다. 厄막이

도화서에서는 수성 선녀와 직일신장의 그림을 그려 임금에게 드리고, 또 서로 선물하는 것을 이룸하여 세화라 한다. 그것으로 송축하는 뜻을 나타낸다. 또 금 갑의 두 장군상을 그리는데 길이가 한 길이 넘는다. 한 장군은 도끼를 들고, 또 한 장군은 절을 들었는데 이 그림을 모두 대궐문 양쪽에다 붙인다. 이것을 문재라 한다. 또 붉은 도포와 까만 사모를 쓴 상을 그려 궁전의 겹대문에 붙이기도 한다. 또 종규가 귀신잡는 상을 그려 문에 붙인다. 또 귀신의 머리를 그려 문설주에 붙이기도 한다. 이것들로써 액과 나쁜 병을 물리치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 궁가와 척리의 문짝에도 모두 이것들을 붙인다. 여염집에서도 이를 본뜬다.

속담에 금 갑 두 장군을 사천왕의 신상이라고도 하고, 혹은 울지공과 진숙보라고도 한다. 붉은 도포를 입은 자는 위정공이라고 한다.⁵⁴⁾

항간에서는 벽 위에 닭과 호랑이의 그림을 붙여 액이 물러나가기를 빈다.

남녀의 나이가 삼재를 당한 자는 세 마리의 매를 그려 문설주에 붙인다. 삼재법이란 이런 것이다. 사, 유, 축이 든 해에 난 사람은 해, 자, 축이 되는 해에, 신, 자, 진이 든 해에 출생한 사람은 인, 묘, 진이 되는 해에, 해, 묘, 미의 해에 태어난 사람은 사 오 미가 드는 해에, 인, 오, 술년에 태어난 사람은 신, 유, 술년에 각각 삼재가 든다는 것이다. 세속에서는 이 복설을 믿고 이렇게 세 마리 매를 그려 액을 막는다. 생년으로부터 9년만에 시삼재가 들기 때문에 이 삼재의 해에 해당하는 3년 간에는 남을 범해도 안되고 모든 일에 꺼리고 삼가는 일이 많다.

남녀가 일년 간 빗질할 때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 빗상자 속에 넣었다가 반드시 설날 황혼을 기다려 문 밖에서 태움으로써 나쁜 병을 물리친다.

중들이 복을 들고 시가로 들어와 치는 것을 범고라 한다. 혹은 모염문을 펴 놓고 방울을 올리면서 염불을 하면 사람들은 다투어 돈을 던진다. 또 중들은 떡 한개를 속세의 떡 두개로 바꾸기도 한다. 속담에 중의 떡을 얻어 어린이를 먹이면 마마를 없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후에 조정에서 중들의 도성문 출입을 금지했으므로 성 밖에서나 이런 풍속이 남아 있다.

소경을 불러다가 보름날 전부터 『安宅經』을 읽으며 밤을 세운다. 액을 막고 복을 비는 까닭이다. 이 달이 다 가도록 계속한다.

서울 성의 복문을 숙청문이라 한다. 항상 닫고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부근의 계곡이 무척 아름답고 그윽하여 보름날 전에 항간의 부녀들이 세 차례씩 와서 논다. 이 문이 액을 막는다고 하기 때문이다. 꼭두새벽에 종각 네거리의 흙을 파다가 집 제 귀퉁이에 뿌리거나 부뚜막에 바른다. 이는 재산 모으기를 바라는 뜻이다.

54) 洪錫謀, 앞의 책

2월 삭일(초하루)에는 온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종이를 잘라 '향낭각시(노래기)여, 속히 천리 밖으로 도망가라'는 여덟 한자를 써서 서까래에 붙인다. 우리나라 말에 여자를 향낭각시라 하니 이는 마륙(노래기)을 미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노래기를 미워하고 물리치는 말이다.⁵⁵⁾

집안을 청소하고 종이를 잘라 '향낭각시 속거 천리'의 여덟 자를 써서 서까래 위에 붙인다. 각시는 우리 말에 여자다.

(3) 時節飲食

가. 正月

정초에 멥쌀 가루를 찌서 안반 위에 놓고 자루 달린 떡메로 무수히 쳐서 길게 만든 떡을 흰떡이라 한다. 이것을 알팍하게 돈같이 썰어 장국에다 넣고 쇠고기나 꿩고기를 넣고 끓인 다음 고추가루를 친 것을 떡국이라 한다. 이것은 제사에도 쓰고 손님 대접에도 사용하므로 세찬에 없어서는 안될 음식이다. 국에 넣어 끓였으므로 옛날에 습면이라고 부르던 것이 바로 이와 같다.

멥쌀 가루를 시루 안에 깔고 삶은 팥을 겹겹으로 퍼는데 쌀가루를 더 두툼하게 간다. 시루의 대소에 따라 흑 찹쌀 가루를 몇 겹 더 넣어 찌기도 한다. 이것을 증병이라 한다. 이것으로 새해에 신에게 빌기도 하고, 또 朔望奠⁵⁶⁾에 올리기도 하며, 아무 때나 신에게 빌 때에도 이것을 올린다.

좋은 쌀로 가루를 만들고 체로 쳐서 물로 고수레한 다음 시루에 찌서 안반 위에 놓고 떡메로 쳐서 조금씩 떼어 손으로 비벼 둥글고 길게 마치 문어발 같이 늘어 놓는다. 이것을 권모(비빔떡, 흰떡)라고 한다.

먼저 장국을 끓이다가 국물이 펄펄 끓을 때 마치 돈 모양같이 잘라서 그 끓는 국 속에 집어 넣는다. 끈적끈적하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 것이 잘된 것이다. 그런데 흑 돼지고기, 쇠고기, 꿩고기, 닭고기 등을 섞기도 한다. 제석날 밤에 식구대로 한 그릇씩 먹는다. 이것을 병탕(떡국)이라고 한다. 향간에서 아이들에게 나이를 묻는데, "너 지금까지 떡국을 몇 그릇 먹었느냐"고 한다.

상원에는 찹쌀을 찌서 대추, 밤, 기름, 꿀, 간장 등을 섞어 함께 찌고 잣을 박은 것을 약밥이라 한다. 이것은 보름날의 음식이다. 그것으로 제사를 지낸다. 이것은 신라의 옛 풍속이다.

『동경잡기』에는, "신라 소지왕 10년 정월 15일 왕이 천천정에 행차했을 때 날아온 까마귀가 왕을 일깨워 주었으므로 우리나라 풍속에 보름날에 까마귀를 제사하는

55) 洪錫謨, 앞의 책

56) 상중(喪中)에 있는 집에서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에 지내는 행사

날로 삼아 찰밥(약밥)을 만들어 까마귀를 제사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라고 했다.⁵⁷⁾ 지금 풍속에는 이것이 시절 음식으로 되었다.

이른 새벽에 날밤, 호두, 은행, 무 등 속을 깨물며 "1년 열두 달 동안 무사 태평하고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하고 축수한다. 이를 잘절(부럼)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고치지방(이를 단단하게 하는 방법)이라고도 한다.

박나물, 버섯 등의 말린 것과 대두황권, 순무, 무 등을 묵혀 둔다. 이것을 진채(묵은 나물)라 한다. 이것들을 반드시 날 나물로 무쳐 먹는다.

설날과 정월 보름에 인가에서는 선조의 제사를 지내는데 강정을 으뜸 음식으로 삼는다. 강정이란 물을 조금도 타지 않은 순수한 술에다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떡같이 만들어 가늘고 알파하게 잘라 말린 다음, 기름을 끓이다가 그 속에 집어 넣으면 푸하고 일어나 뚱뚱 뜬다. 그 때 그 등글고 크게 된 모양이 마치 누에고치 같다. 거기에는 엿을 바르고 볶은 흰 참깨를 묻힌다. 혹은 볶은 콩가루를 묻히기도 한다.⁵⁸⁾

나물을 먹는 사람은 대개 외꼬지, 말린 가지, 무잎을 모두 버리지 않고 천천히 햇볕에 말려 두었다가 정월 보름에 삶아 먹는다.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먹는다.

이 날만은 개를 먹이지 않는다. 개에게 먹을 것을 주면 파리가 많이 피고 마른다고 한다. 그래서 속담에 굶는 것을 '개 보름 쇠듯 한다'고 한다. 어린이로서 몸을 타서 살빛이 검어지고 야위는 아이들은 상원에 백 집의 밥을 빌어다가 절구를 타고 개하고 마주앉아 개에 한 숟갈 먹이고 자기도 한 숟갈 먹으면 그런 병이 도지지 않는다고 한다.

입춘에는 이른 봄 눈이 녹을 때 산 속에 자라는 멧갓을 더운 물에 데쳐 초장에 무쳐서 먹으면 맛이 매우 맵다. 그래서 고기를 먹은 뒷맛으로 좋다.

송점초는 움에서 기르는 당귀의 싹이다. 깨끗하기가 온비녀의 다리 같다. 꿀을 그 싹에 끼워 먹으면 좋다.⁵⁹⁾

나. 2월

2월 삭일(초하루)에는 정월 보름날 세워 두었던 화간(벼가릿대)에서 벼이삭을 내려다가 흰떡을 만든다. 크게는 손바닥만하게, 작게는 계란만하게 만드는데 모두 반쪽의 둥근 옥 모양 같다. 콩을 불려서 소를 만들어 넣고 시루 안에 술잎을 겹겹이 깔고 넣어서 찐다. 푹 익힌 다음 꺼내어 물로 닦고 참기름을 바른다. 이것을 송편이라 한다. 이것을 종들에게 나이 수대로 먹인다. 그래서 속칭 이 날을 노비일(허드렛날)이라고 한다. 농삿일이 이 때부터 시작되므로 이를 노비에게 먹이는 것이라 한다.

57) 洪錫謨, 앞의 책

58) 金遇淳, 앞의 책

59) 洪錫謨, 앞의 책

떡집에서는 팥, 까만 콩, 푸른 콩을 소로 넣거나 혹은 꿀을 섞어 싸기도 하고 혹은 불린 대추와 삶은 미나리를 넣어 떡을 만들기도 한다. 이 날로부터 이것을 시절 음식으로 치는 것이다.

다. 3월

삼월 삼일(重三) 삼진날에는 진달래 꽃을 따다가 찹쌀가루에 반죽을 하여 등근 떡을 만들고 그것을 기름에 지진 것을 화전(꽃전)이라 한다. 이것이 곧 옛날의 오병(떡볶이)의 한구(지금의 산자)다. 또 녹두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것을 가늘게 썰어 오미자 국에 띄우고 꿀을 섞고 잣을 곁들인 것을 화면이라 한다. 혹은 진달래꽃을 녹두가루에 반죽하여 만들기도 한다. 또 녹두로 국수를 만들기도 한다. 또 녹두로 국수를 만들어 혹은 붉은 색으로 물을 들이기도 하는데 이것을 꿀물에 띄운 것을 수면이라 한다. 이것들은 아울러 시절 음식으로 제사에 쓴다.⁶⁰⁾

穀雨에 강물 고기 중 아름다운 것에 공지(공미리)라는 생선이 있다. 큰 것은 한 자나 된다. 비늘이 잘고 살이 많이 찌서 회로 만들어도 좋고 국을 끓여도 좋다. 이것이 매년 3월 초 한강을 거슬러 동쪽으로 올라가 미음까지 가서야 멈춘다. 이런 현상은 곡우 전후 삼진날을 전후하여 가장 성하다. 이 때가 지나면 없어진다.

그런데 강가에 사는 사람은 이것으로 철의 이르고 늦음을 점친다. 농암 김창협(1808~1868)의 시에 "물고기가 곡우철을 맞이하느라고 비늘을 번쩍이며 올라가는구나"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3월에 녹두포(총포묵)를 만들어 잘게 썰고 돼지고기, 미나리, 김을 섞고 초장을 쳐서 무쳐 매우 서늘한 봄날 저녁에 먹을 수 있게 만든 음식을 탕평채(묵청포)라 한다. 계란을 깨뜨려 끓는 물에 넣어 반쯤 익혀서 초장을 친 것을 수란이라 한다. 황저합(노랑고 작은 조개)과 석수어(조기)로써 국을 끓여 먹기도 한다. 소어(벤댕이)는 안산 내양에서 나고 제어(웅어), 속명으로 위어는 한강 하류 고양 행주에서 나온다. 봄이 다 갈 무렵 사옹원의 관리가 그물을 던져 잡아다가 진상한다. 생선장수들도 거리로 돌아다니며 이것을 파느라고 소리친다. 이것을 회의 재료로 이용하기도 한다. 복사꽃이 떨어지기 전에 하돈(복)에 파란 미나리와 기름과 간장을 섞어 국을 끓이면 그 맛은 참으로 진기하다. 노호에서 나오는 복이 제일 먼저 시장에 들어온다. 그 복을 꺼리는 사람은 독미어(송어)로 대신 끓이는데 이 독미어 역시 시절 생선으로서 훌륭한 것이다. 서여(마)를 캐다가 찌서 먹기도 하고 혹은 꿀을 발라 조각조각 썰어 먹기도 한다.

술집에서는 과하주를 만들어 판다. 술의 이름으로 소국주, 두견주, 도화주, 송순주

60) 洪錫謀, 앞의 책

등이 있는데 모두 봄에 빚은 훌륭한 술들이다. 소주는 공덕 옹막에서 삼해주를 빚어 내는 술독에서 빚어진 천백 독의 술이 가장 이름이 있다. 평안도 지방의 감홍로와 벽향주가 있고 황해도 지방에는 이강주, 호남지방에는 죽령고 계당주, 충청도 지방에는 노산춘 등이 가장 좋은 술들이다. 또 이것들 중에는 선물로 오는 것도 있다.

떡집에서는 멥쌀로 희고 작은 떡을 만드는데 모양이 방울 같다. 그 속에 콩으로 소를 넣고 머리 쪽을 오무린다. 그 방울 같은 떡에 오색 물감을 들여 다섯 개를 죽이은 것이 마치 연주와 같다. 혹 청, 백색으로 반원같이 만들기도 하는데 작은 것은 다섯 개를, 큰 것은 두세 개를 이어 붙인다. 이것들을 산병(팝장떡)이라고 한다. 또 오색의 둥근 떡을 만드는데 송피(소나무 속껍질)와 청호(제비쑥)를 섞어 둥근 떡을 만들기도 한다. 이것을 환병이라 한다. 이 중에서 큰 것을 마제병이라 한다. 또 찹쌀에 대추의 살을 섞어 증병(시루떡)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모두 봄철의 시절 음식이다.

『세시잡기』에 "두 사일에 떡먹기를 좋아하는데 대추로 떡을 만든다"⁶¹⁾ 고 하였다. 지금의 풍속도 또한 그렇다. 남산 아래에서는 술을 잘 빚고 북부에서는 좋은 떡을 많이 만드므로 서울 속담에 '남주북병'이란 말이 생겼다.

네 번의 말날을 이용하여 술을 거꾸 담그면 봄이 지나자마자 곧 익고 일년이 넘어도 부패하지 않는다. 이런 술을 사마주라 한다.

인가에서는 빵을 따다가 누에를 친다.

채소장수는 배추의 새싹을 짚어지고 떼를 이루어 다니면서 소리치며 판다. 이를 청근상(무 장수)이라 한다. 만칭(순무)도 새로 나와 소리치며 파는데, 시절음식으로 좋다. 서울 풍속에 산언덕 물굽이에 나가 노는 것을 화류(꽃놀이)라 한다. 이것은 곧 삼진날의 답청하는 데서 유래된 풍속이다. 필운대의 살구꽃, 북둔의 복사꽃, 흥인문 밖의 벼들이 가장 좋은 곳이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경외의 무사들과 동리 사람들이 모여 과녁을 펼쳐 걸고 편을 나누어 활쏘기 대회를 열어 승부를 겨룬다. 그런 후에 음주로써 즐긴다. 가을철에도 또한 이러했다.

2) 夏節의 歲時風俗

하절은 음력 4월, 5월, 6월이고, 춘절과는 달리 播種 후의 成長儀禮가 중심이 된다. 세시풍속으로는 4월 석탄일, 5월 수릿날, 6월 유두일이 있다.

(1) 名節

가. 사월 초파일

61) 柳得恭, 앞의 책

8일은 곧 석가모니의 탄신일이다. 우리 나라 풍속에, 이 날에 등불을 켜므로 燈夕이라 한다.

『고려사』에 "왕궁이 있는 국도로부터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정월 보름에 이틀 저녁을 연등하던 것을 최이가 4월 8일로 연등을 옮겨 갔다"고 했다. 그러므로 정월 보름 연등 행사는 본디 중국의 제도요, 고려 풍속에는 이미 없어져 버렸다. 또 『고려사』에 "우리 나라 풍속에 4월 8일은 석가의 탄생일이므로 집집에서 연등을 한다. 이 날이 되기 수십 일 전부터 여러 아이들은 종이를 잘라 등대에 매달아 깃발을 만들고 성 안의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쌀이나 돈을 구하여 비용으로 쓰니 이를 호기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지금 풍속에 등대에 기를 다는 것은 '호기'의 유풍이다.⁶²⁾

등의 이름에는 수박등, 마늘등, 연꽃등, 칠성등, 오행등, 일월등, 공등, 배등, 종등, 북등, 누각등, 난간등, 화분등, 가마등, 머루등, 병등, 향아리등, 방울등, 알등, 용등, 봉등, 학등, 잉어등, 거북등, 자라등, 수복등, 태평등, 만세등, 남산등 등이 있는데 모두 그 모양을 상징하고 있다.

시내의 등 파는 집에서 파는 등은 천태만상으로 오색이 찬란하고 값이 비싸며 기이함을 자랑한다. 종가(종로)에는 이 등들을 보려고 사람들이 담벼락 같이 몰려선다. 또 난조, 학, 사자, 호랑이, 거북, 사슴, 잉어, 자라 모양의 등과 선과 선녀가 말 탄 형상의 등을 만들어 팔면, 여러 아이들은 다투어 사가지고 장난하며 논다. 연등회 날 저녁에는 전례에 따라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된다. 온 집안의 남녀들은 초저녁에 남북의 산기슭에 올라가 등 달아 놓은 광경을 구경한다. 혹 어떤 이는 악기를 들고 거리를 쏘다니며 논다. 그리하여 서울 장안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불야성을 만든다. 그렇게 떠들썩하기를 밤을 새워서 한다.

장안 밖의 시골 노파들은 서로 붙들고 다투어 와서 반드시 남산의 잠두봉에 올라가 이 장관을 구경한다.

나. 5월 端午

공조에서는 단오 부채를 만들어 바친다. 그러면 임금은 그것을 각 궁에 속한 하인과 재상, 시종신 등에게 나누어 준다. 그 부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대나무 살이 흰 화살 같은데 40개부터 50개나 된다. 이것을 백첩이라 하고, 칠을 한 것을 칠첩이라 한다. 이것을 얻은 사람은 대개가 금강산의 일만이천 봉을 그린다. 그리고 기생이나 무당 등이 가진 부채에는 근래 풍속에 버들가지, 복사꽃, 연꽃, 나비, 희봉어, 해오라기 등의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한다.

62) 洪錫謨, 앞의 책

다. 流頭

15일은 우리 나라 풍속에 유두일이라 한다.

『김극기집』에 "동도에 전해 내려오는 풍속에 6월 보름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길한 것을 씻어버린다. 그리고 계음(액막이로 모여 마시는 술자리)을 유두연이라 한다."고 했다. 조선의 풍속도 이것을 따라 토속적인 명절이 되었다.

(2) 厄막이

내의원에서는 제호탕을 만들어 바친다. 또 옥추단도 만들어 금박으로 싸서 바친다. 그러면 그것을 오색실에 붙들어 매어 차고 다녀 재액을 제거한다. 또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나누어 준다.

단오 관상감에서는 주사(붉은 칠)로써 천중절의 붉은 부적을 박아 대궐 안으로 올린다. 그러면 대궐 안에서는 그것을 문설주에 붙여 불길한 재액을 막게 한다. 경사대부의 집에서도 그것을 붙인다.

남녀 어린이들이 창포탕을 만들어 세수를 하고 홍색과 녹색의 새옷을 입는다. 또 창포의 뿌리를 깎아 비녀를 만들되 흑 '수'자나 '복'자를 새기고 끝에 연지를 발라 두루 머리에 꽂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액을 물리친다. 이것을 단오장이라 한다. 또 『세시잡기』에 "단오에 창포와 쑥을 자르는 것은 어린이를 위해서요, 흑 호로의 모양을 만들어 차는 것은 액을 물리치는 것이다"라고 했다.⁶³⁾ 지금 풍속에 창포로 목욕하고 뿌리를 머리에 꽂고 하는 것이 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流頭日에 맑은 개울을 찾아가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으며 하루를 淸遊하면 상서롭지 못한 것을 쫓고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믿는다. 또 이날에는 잡기의 출입을 막고 厄을 쫓는다하여 밀가루를 반죽하여 구슬처럼 만들고 색으로 물들여 세 개씩 포갠 후 색실로 꿰어서 허리에 차거나 대문 위에 걸어 둔다.

(3) 時節飲食

가. 4월

4월에는 떡을 파는 집에서는 찹쌀 가루를 반죽하여 한 조각씩 떼어서 술을 넣고 찌서 부풀부풀 부풀어 오르게 하여 마치 방울같이 만든다. 그리고 삶은 콩을 소로 꿀을 섞어 그 방울모양의 떡 속에 넣는다. 그 위에 대추의 살을 떼어 발라 찢 것을 증편이라 한다. 청, 백 두 빛깔의 것이 있는데 청색의 것은 당귀의 잎가루를 섞었기 때문이다.

또 방울같이 부풀어 오르게 하지 않고 조각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한다. 노란 장미

63) 柳得恭, 앞의 책

꽃을 따다 떡을 만들어 기름에 지져 먹기도 한다. 마치 삼진날 화전과 같다.

생선을 잘게 썰어 익혀 외나물, 국화잎, 파싹, 석이버섯, 익힌 전복, 계란들을 섞은 것을 어채라 한다. 또 생선을 두껍고 넓게 잘라 조각을 만들고 그것으로 육소를 찐 것을 어만두라 한다. 또 그것을 초장에 찍어 먹는다.

삶은 미나리를 파에다 섞어 회를 만들고 후추가루와 간장을 얹어 술안주로 먹는다. 이것들이 모두 첫여름의 시절 음식이다.

계집애들과 어린애들이 봉숭아를 따다가 백반에 섞어 짓짚어서 손톱에 물을 들인다.

나. 5월

5월 단오에는 쭉쭉을 따다가 짓이겨 멥쌀 가루 속에 넣고 녹색이 나도록 반죽을 하여 떡을 만든다. 수레 바퀴 모양으로 만들어 먹는다. 그러므로 수렛날(술의 날)이라고 한다. 떡을 파는 집에서는 시절 음식으로 이것을 판다.

쭉쭉 등의 흰 것을 벌에 찍어 말려 화용(부식기)을 만든다. 이것을 수리치라 한다.

정오에 익모초와 회령을 뜯어다가 벌에 말려 약용으로 만든다. 또 대추나무를 시집보낸다.⁶⁴⁾

다. 6월

6월 유두에는 멥쌀 가루를 찌서 긴 다리같이 만들어 등근 떡을 만들고 잘게 썰어 구슬같이 만든다. 이것을 꿀물에 넣고 얼음에 채워서 먹고 제사에도 쓴다. 이것을 수단이라고 한다. 또 건단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물에 넣지 않은 것으로 곧 냉도의 종류이다. 흑 찹쌀가루로 만들기도 한다. 또 밀가루를 반죽하여 콩이나 깨에 꿀을 섞은 소를 싸서 찐 것을 상화병이라 한다.

또 밀가루를 맷돌질하여 기름에 지지고 나물 소를 싸거나 콩과 깨에 꿀을 섞은 소를 싸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오무려 만든 것을 연병이라 한다.

또 잎 모양으로 주름을 잡아 오무려 붙이고 채롱에 찌서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한다. 이것들이 모두 유두날의 시절 음식이요 제사에 쓰기도 한다. 밀가루로 구슬같은 모양을 만들어 유두면이라 한다.⁶⁵⁾

三伏에 개를 삶아 파를 넣고 푹 끓인 것을 개장이라 한다. 닭이나 죽순을 넣으면 더욱 좋다. 또 개국에 고추가루를 타고 밥을 말아서 시절 음식으로 먹는다. 그렇게 하여 땀을 흘리면 더위를 물리치고 허한 것을 보충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도 이것을 많이 판다. 붉은 팔으로 죽을 쑤어 초복, 중복, 말복에 모두 먹는다. 개를 잡아 삶아 국을 끓여 양기를 돕고 팔죽으로써 여역을 예방한다.

64) 洪錫謨, 앞의 책

65) 洪錫謨, 앞의 책

3) 秋節의 歲時風俗

가을은 음력 7월부터 9월까지의 시기로 수확에 따른 세시풍속이 대부분이다. 俗節은 7월에 七夕과 百種, 8월에 秋夕, 9월에 重陽이 있다.

(1) 俗節

가. 七夕

7월 7일은 칠석이라 하고 이 날에는 견우와 직녀의 애뜻한 사랑과 전설이 있다. 칠석은 원래 중국의 속절로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고려 공민왕대에는 견우 직녀성에게 제사하고 백관들에게 녹을 주었다. 조선에서는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고 성균관의 유생에게 節日製의 과거를 실시하였다. 서당에서는 학동들에게 견우직녀를 제목으로 하여 시를 짓게 하였다.

인가에서는 옷과 책을 햇볕에 말리는 풍습이 있었다.⁶⁶⁾

나. 백중

15일을 우리 나라 풍속에서 백중날이라 한다. 중들이 재를 올리며 불공을 드리고 큰 명절로 안다. 『우란분경』에 "목련비구가 오미 백과를 갖추어 쟁반 안에 넣어가지고 시방 대덕에게 공양한다."고 했다. 지금 말하는 백중이 백과를 가리키는 것 같다.⁶⁷⁾

고려시대에는 부처를 숭상하여 이날이면 항상 우란분회를 베풀었다. 지금 풍속에 재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 나라 풍속에 백중날을 망혼일이라 한다. 대개 여염집 사람들은 이날 저녁 달밤에 채소, 과일, 술, 밥 등을 차려 놓고 죽은 아버지의 혼을 부른다.

속칭 백중절이라 한다. 서울 사람들은 성찬을 차려 산에 올라가 노래하며 춤추는 것으로 낙을 삼는다.

다. 秋夕

중국에서는 이 날을 仲秋 또는 月夕이라 부르며 명절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秋夕이라 하여 옛날부터 민간에서는 1년의 속절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⁶⁸⁾

추석을 시골 농촌에서는 일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로 삼는다. 새 곡식이 이미 익고 추수가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사람들은 닭고기, 막걸리 등으로 모든 이웃들과 실컷 먹고 취하여 즐긴다.

66) 洪錫謨, 앞의 책

67) 洪錫謨, 앞의 책

68) 洪錫謨, 앞의 책

경주 풍속에 신라 유리왕 때 6부의 중간을 나누어 2부로 만들고 와너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한 부안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편을 갈라 7월 16일부터 매일 일찍이 큰 부의 뜰에 모여 베를 짜게 했다. 그리하여 을야가 되어서야 파했다. 이렇게 8월 보름까지 하여 그 간의 성적을 며겨 진 편에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사례했다. 이 때 노래와 춤을 추면서 온갖 놀이를 다 했다. 이를 가배라 했다. 이 때 진 편이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면서 탄식하되 '회소, 회소'하니 그 소리가 애처러워서 그 소리를 따라 노래를 지었다. 이 노래를 회소곡이라 한다.⁶⁹⁾ 우리 나라 풍속에 지금도 이를 행한다.

라. 重陽(重九)

9월 9일을 중양일 또는 구중이라고 한다.

중양이란 陽數가 겹쳤다는 뜻으로 양수는 홀수인데 1년 중에 이 양수가 겹친 날은 1월 1일·3월 3일·5월 5일·9월 9일을 다 俗節로 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9는 양수가운데서 극양이므로 9월 9일만을 특별히 중양일이라 한다. 그리고 重九日은 九가 겹쳤다는 뜻인데 중구일보다는 중양일이 널리 쓰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중양일을 속절로 여기는 것은 중국의 풍습에서 온 것이지만 중양일을 다른 북방 제민족에서도 속절로 삼았다. 즉 北齊에서는 이 날 騎射를 했고, 遼에서는 射虎賜宴을 했으며 금에서는 拜天射柳의 의식을 거행했다.

또 조선 世宗 때는 重三節(3월 3일)과 함께 중구일을 會節로 공인하였고, 成宗 때는 추석에 設行하던 耆老宴을 중양일로 옮겼으며, 유생들에게는 節日製의 과거를 실시했다.

옛날 사대부들은 옛것을 사랑하여 대개 중양일에 높은 데 올라가 시를 지었다.⁷⁰⁾

서울 풍속에도 중양일에는 남산과 북악산에 올라 마시고 먹으며 즐겼는데⁷¹⁾ 이것은 중국의 登高의 풍습을 따른 것이다.

이는 등고의 옛 풍습을 답습한 것이다. 청풍계, 후조당, 남한산,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등이 단풍 구경하는 데 좋다.

단풍이 들고 국화가 만발할 때 남녀들이 이를 구경하는 것이 봄에 꽃과 버들을 구경하는 것과 같다.

(2) 茶禮·厄막이

가. 茶禮

69) 洪錫謨, 앞의 책

70) 金邁淳, 앞의 책

71) 洪錫謨, 앞의 책

7월에 벼가 익으면 경대부가에서는 祠堂에 薦新을 하는 朔望奠을 올린다. 불교신자들은 절의 칠성각에 가서 자손들의 명과 복을 비는 7석불공을 드린다. 文廟奠은 8월 上丁日(첫번째 정일)에 秋期釋奠祭를 지낸다.

한가위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다. 그 역사도 오래거니와 특히 이 날은 우리 민족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조상신에게 차례를 지내고 산소까지 찾는 명절이다. 이 날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배불리 먹고 즐겁게 지내는 날이기 때문이며, 특히 '8월 한가부'라고 한 것은 그것이 8월 15일, 즉 8월달 중에서도 한(正)가운데란 것을 뜻함인 것이다.

나. 厄막이

여단제는 9월 중앙일에 지낸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서울과 郡縣에는 一廟三壇(文廟·社稷壇·城隍壇·厲壇)을 두어 無主孤魂들을 여단에서 제사했다.⁷²⁾ 오늘날 一廟三壇 중에 문묘는 그대로 남아 춘추로 석전제를 지내고 있으나 사직단·성황단·여단은 거의 폐지되어 제사는 안 지내나 간혹 여단이 남아 있는 곳에서는 중앙일에만 제사한다. 속설에는 여단에 있는 무주고혼들은 7월 百種에 나와서 얻어먹다가 9월 중앙일에 다시 들어가게 되어 이 날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3) 時節飲食

가. 7월

7월에는 밭곡식인 밀과 보리를 거둔다. 그래서 칠석날과 백중 때는 밀을 빵아 밀가루를 만들어 밀전병과 밀개떡을 해 먹는다. 또 수수나 감자로 떡을 만들어 먹으며 부침개를 해 먹기도 한다. 이 때 호박이 제철이므로 호박부침을 별미로 만들어 먹는다.

나. 8월

8월 추석에는 새 곡식이 이미 익고 추수가 멀지 않으므로 아무리 벽촌의 가난한 집에서라도 모두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 찬을 만들며 또 온갖 과일을 풍성하게 차려 놓는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같기만 하여라”고 말했다.

옛날 추석에는 時食도 많다. 햅쌀로 술을 빚어 먹으며 송편을 만드니 이를 오래송편이라 한다. 송편 속에는 역시 햇콩·햇동부 등으로 만든 고물이나 참깨·밤·대추 등을 넣는다. 또 무우와 호박을 섞어 시루떡을 만들어 먹었다. 또 찹쌀가루를 찌떡판에 쳐서 떡을 만들어 볶은 검은 콩가루나 누런 콩가루·깨소금을 묻힌 인절미

72) 『春官志』 참조

를 만들어 먹었다.

나물로는 숙주나물이 별식이다. 녹두를 콩나물처럼 시루에 담아 물을 주어 기른 이 숙주나물은 전라도에서는 녹두나물이라고 한다. 또한 박나물도 별미이다.

국으로는 토란국을 時食으로 친다. 토란으로 국을 끓이는 것인데, 거기에 된장을 풀기도 하며, 또 닭고기나 쇠고기를 넣어 맛을 돋구기도 한다.

다. 9월

중양절에는 빛이 누런 국화를 따다가 찹쌀떡을 만든다. 방법은 3월 삼진날의 진달래떡을 만드는 방법과 같다. 이것을 화전이라고 한다.

서울 풍속에 이 날 남산과 북악산에서 마시고 먹으며 즐긴다.⁷³⁾

4) 冬節의 歲時風俗

동절은 음력 10월에서 12월까지로 10월 상달이 갖는 농경의례적 관념과 동지선달에 내포된 송구영신, 벽사진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속절로는 동지와 12월의 납일과 제석이 있다. 여기에서는 윤달을 함께 다루겠다.

(1) 俗節

가. 상달

10월은 상달이라 하여 서울, 시골 할 것 없이 각 가정에서는 10월 중에서 좋은 날을 택해 성주반이 굿(城主祭)을 하는데, 대개는 午日에 하며, 오일 중에서도 戊午日을 가장 좋은 날로 한다. 햅쌀로 떡을 하고, 술을 빚어 과일과 여러 가지 음식을 갖춰놓고 성주신에게 일가의 평안과 무사하기를 비는 것이다. 대개는 무당을 불러들여서 하는데, 혹 무당이 아니고 판수를 불러서 經文을 읽게 하는 집도 있으며, 이것을 "安宅한다"라고도 한다. 『동국세시기』 10월 月內조에도 人家에서는 10월을 상달이라 하여 무당을 데려다가 成造神을 맞이하여 떡과 과일을 베풀어 놓고 빌어서 집안의 편안함을 바란다고 하였다.

나. 冬至

관상감에서는 달력을 올린다. 그러면 황장력(황색으로 장식한 달력)과 백장력을 모든 관원에게 나누어 주는데 '同文之寶'란 어새를 찍었다. 각 관청도 모두 나누어 받는 몫이 있다. 각 관청의 아전들도 각기 친한 사람을 두루 문안하는 것이 통례다.

73) 金邁淳, 앞의 책

이조의 아전들은 각 벼슬한 집에서 자기가 도맡아 고신을 써 준 사람이 직무에 취임하게 되면 그로부터 당참전을 받는다. 그러면 그 아전은 통례에 따라 이 때 청장력한 권을 그 사람에게 기증한다. 그러므로 서울의 옛 풍속이, 단오날의 부채는 관원이 아전에게 나누어 주고 동짓날의 달력은 아전이 관원에게 바친다. 이것을 '하선동력'이라 한다. 그러면 그 관원은 이 달력을 자기 출신 고향의 친지, 묘지기, 농토 관리인에게 나누어 준다.⁷⁴⁾

내의원에서는 관계, 후추, 설탕, 꿀을 쇠가죽에다 섞어 삶아 기름이 영기도록 만든다. 이를 전약이라 하는데 이것을 진상한다. 각 관청에서도 이를 만들어 나누어 가진다.

다. 臘日

조선시대에는 동지 후 세번째 미일로 납일을 정하여 종묘와 사직에 큰 제사를 지냈다.

『지봉유설』에 채옹의 설을 인용하여 "청제는 미랍으로써, 적제는 술랍으로써, 백제는 축랍으로써 흑제는 진랍으로써 한다."했으므로 우리 나라도 미로써 납일을 삼았으니 동방이 목에 속하기 때문이라 한다.

내원에서 각종의 환약을 만들어 올린다. 이것을 납약이라고 한다. 그러면 임금은 그것을 근시와 지밀나인 등에게 나누어 준다. 청심원은 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고, 안신원은 열을 다스리는 데 효과적이며, 소합원은 곱란을 다스리는 데 효과적이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건륭 경술년에 새로 제증단과 광제환의 두 종류의 환약도 만들었으니 실로 밝으신 생각에서 고안해 낸 것이다. 이것들은 소합원보다 효과가 더욱 빠르다. 그것을 모든 영문에 나누어 주어 군사들을 치료하는 데 쓰게 했다. 또 기로소에서 납제를 만들어 여러 기신들에게 나누어 주고 각 관청에서도 많이 만들어 나누어 주기도 하고 서로 선물하기도 했다.

납향에 쓰는 고기로는 산돼지와 산토끼를 사용했다. 경기도내 산간의 군에서는 옛부터 납향에 쓰는 산돼지를 바쳤다. 그러기 위해서 그 곳 수령은 온 군민을 발동하여 산돼지를 수색하여 잡았다. 그러나 건륭이 특히 이 관습을 파하고 서울 장안의 포수더러 용문산, 축령산 등의 산에 가 사냥을 해다가 바치도록 했다.⁷⁵⁾

또 참새를 잡아 어린이를 먹이면 마마를 깨끗이 한다고 하여 항간에서는 이날 그 물을 쳐서 참새를 잡기도 하고, 탄환을 재어서 총을 쏘아 잡아도 목인했다.

납일에 온 눈의 녹은 물은 약용으로 쓰며, 그 물에 물건을 적서 두면 구더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74) 洪錫謨, 앞의 책

75) 洪錫謨, 앞의 책

라. 除夕

조신 2품 이상과 시종신들이 대궐에 들어가 묵은 해문안을 올린다. 사대부 집에서는 사당에 참례한다. 연소자들이 친척 어른들을 찾아 방문하는 것을 묵은 세배라 한다.

또 이날은 초저녁부터 밤중까지 길거리의 등불이 줄을 이어 끊어지지 않는다.

대궐 안에서는 제석 전날부터 대포를 쏘는데 이를 연중포라 한다. 화전을 쏘고 징과 북을 울리는 것은 곧 대나의 역질 귀신을 쫓는 행사의 남은 제도이다. 또 제석과 설날에 폭죽을 터뜨려 귀신을 놀라게 하는 것을 모방한 제도다.⁷⁶⁾

제석 하루 이틀 전부터 소를 잡지 못하게 하던 것을 완화한다. 여러 범사에서 소를 잡지 못하게 하는 패를 회수했다가 설날에 이르러서야 내어준다. 이는 시민이 정초에 쓸 쇠고기를 실컷 먹으라는 뜻이다. 혹 이런 행사를 하지 않기도 한다.

인가에서는 다락, 마루, 방, 부엌에 모두 등잔을 켜 놓는다. 흰 사기접시 하나에 다 실을 여러 겹 꼬아 심지를 만들고 기름을 부어 외양간 변소까지 환하게 켜 놓으니 마치 대낮 같다. 그리고 밤새도록 자지 않는다. 이것을 守歲라고 한다. 이는 곧 庚申을 지키던 유속이다.

숙담에 제야에 잠을 자면 두 눈썹이 모두 세어진다 한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대개 속아 잠을 자지 않는다. 혹 자는 애가 있으면 다른 아이가 분을 개어 자는 아이 눈썹에 바르고 깨워서 거울을 보게 하면서 놀린다.

이 庚申守夜는 고려시대 유행하던 도교의 俗信 중 하나이다. 경신수야는 경신일 밤을 잠자지 않고 지새우는 것으로, 그 근원은 司閻神의 신앙에서 나왔다. 천상의 옥황상제는 인간의 죄과를 맡아 다스리는데 인간이 저지른 죄과의 경중에 따라, 사람마다에 주어졌다는 120세의 수명에서, 그 紀(300일)와 算(3일) 즉 일정한 분량의 수명을 빼앗아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인체 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三尸蟲이 들어 있어 그 宿主가 저지른 죄과를 60일마다 오는 경신일 밤 숙주가 잠든 사이에 빠져 나가 천제에게 보고 한다는 것이다. 이 삼시충이 몸에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잠을 자지 않고 지새우는 것이 경신수야이다. 이 풍습은 언제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고려시대에는 이미 민간에 퍼져 있었고 元宗의 태자까지도 경신수야를 한 기록이 전해진다. 이 습속이 조선시대까지 전해 내려 온 것이다.⁷⁷⁾

마. 세초 · 총명지

초하룻날 선부에서 조신 중에 파면되었거나 강등되었던 사람의 이름을 상신하는 것을 세초라고 한다. 점수가 낮은 사람을 서용 또는 감동한다. 6월 초하루에도 그러

76) 柳得恭, 앞의 책

7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기초자료선집-중세편』 참조

했다. 이는 대체로 대정은 6월과 12월에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의 경사가 있어 사면하게 될 때에는 따로 세초를 상신한다. 이는 대체로 소탕의 은전에서 나온 것이다.

평안도·황해도의 두 병마절도사는 예에 따라 세찬을 조정의 벼슬아치와 친지의 집에 보낸다. 각 도의 감사, 병사, 수사 등과 수령 등도 세쾌(연말에 진상하는 공물)의 예를 따른다. 편지 안에 따로 작게 접은 종이를 준비하여 토산물의 여러 종류를 열거하여 적는다. 이것을 총명지라고 한다.

각 관청의 아전들도 생치, 꽃감 등의 물건을 자기의 친한 집에 선물한다.

(2) 祈福·厄막이

가. 祈福

세속의 제야와 원단에 옷을 던져 쾌를 보아 새해의 길흉을 점친다. 그 점치는 법은 64괘로 나누어 각각 요사가 있다. 대개 세 번을 던져 "어린애가 젖을 얻는 쾌", "죄가 창고에 들어가는 쾌" 등이 나오면 길하다. 혹 세번 던진 것 중에서 첫번 던진 것은 묵은 해를, 둘째번은 새해 설날을, 셋째번에 던진 것은 정월 보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옷을 연이어 던진 쾌를 보아야 한다고 한다.

나. 厄막이

10월 오일을 말날이라 한다. 팔로 시루떡을 만들어 외양간에 갖다 놓고 신에게 기도하여 말의 건강을 빈다. 그러나 병오의 날은 이용하지 않는다. 丙은 病과 음이 같으므로 말의 병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오일이 가장 좋다.⁷⁸⁾

인가에서는 10월을 상달이라 하여 무당을 데려다가 성주신을 맞이하여 떡과 과일 을 베풀어 놓고 집안의 편안함을 바란다.

동짓날을 亞歲라 한다. 팔죽을 쑤는데 찹쌀 가루로 새알 모양의 떡을 만들어 그 죽속에 넣어 새알심을 만들고 꿀을 타서 시절 음식으로 삼아 제사에 쓴다. 그리고 팔죽 국물을 문에 뿌려 상서롭지 못한 것을 제거한다.

윤달에는 풍속에 결혼하기에 좋고 수의 만드는 데 좋다.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 광주 봉은사에서는 매양 윤달을 만나면 서울 장안의 여인들이 다투어 와서 불공을 드리며 돈을 담 위에 놓는다. 그리하여 그 윤달이 다 가도록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로 간다고 하여 사방의 노파들이 분주히 달려와 다투어 모인다. 서울과 외도의 여러 절에서도 대개 이런 풍속이 있다.

(3) 時節飲食

78) 金邁淳, 앞의 책

가. 10월

내의원에서는 우유를 만들어 바친다. 10월 1일부터 정월까지 한다. 또 기로소에 서도 우유를 만들어 여러 기신들을 봉양한다. 정월 보름에 가서 그친다

서울 풍속에 숯불을 회로 가운데 훨훨 피워 놓고 번철을 올려 놓은 다음 쇠고기를 기름, 간장, 계란, 파, 마늘, 고추가루에 조리하여 구우면서 화룻가에 둘러앉아 먹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난로회라 한다. 이달부터 추위를 막는 시절 음식으로 이것이 곧 옛날의 난로회이다. 또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무 외 훈채, 계란을 섞어 장국을 만든다. 이는 열구자·신선로라는 호칭이 있다.

어린 썩을 뜯어다가 쇠고기와 계란을 넣고 섞어 끓인 것을 애당이라 한다. 또 썩을 찌 찹쌀 가루에 섞어 떡을 만들고 볶은 콩가루를 꿀에 섞어 바른 것을 애단지라고 한다. 또 찹쌀 가루로 동그란 떡을 만들어 삶은 콩을 꿀에 섞어 바르되 볶은 빛이 나게 한 것을 밀단고라 한다. 이것들이 모두 초겨울의 시절 음식이다.

서울 풍속에 무 배추 마늘 고추 소금 등으로 독에 김장을 담근다. 여름의 장담기와 겨울의 김장담기는 인가에서 일년의 중요한 계획이다.

나. 11월

동지에 팔죽을 썬데 찹쌀 가루로 새알 모양의 떡을 만들어 그 죽 속에 넣어 새알심을 만들고 꿀을 타서 시절 음식으로 삼아 제사에 쓴다

메밀국수를 무김치, 배추김치에 말아 돼지고기를 섞은 것을 냉면이라고 한다. 또 잡채와 배, 밤, 쇠고기, 돼지고기 썬 것과 기름, 간장을 메밀국수에다 섞은 것을 골동면(비빔국수)이라 한다. 평안도 냉면이 최고다.

무 뿌리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김치를 담근 것을 동치미라 한다. 꽃감을 달인 물에다 넣고 생강과 잣을 넣은 것을 수정과라 한다.

모두 겨울철의 시절 음식이다. 새우로 젓을 담가 결이 삭은 뒤 무, 배추, 마늘, 생강, 고추, 청각, 전복, 소라, 굴조개, 조기, 소금으로 막김치를 만들어 독에 넣어 오래 두었다가 겨울이 지나 꺼내어 먹으면 몹시 매운 것이 먹을 만하다.

또 무, 배추, 미나리, 생강, 고추로 장김치를 담갔다 먹기도 한다.

다. 12월

납일에는 엿을 곤다. 밥에 엿기름과 물을 부어 삭힌 다음 것불로 밥을 목같이 되도록 끓인 다음 그것을 자루에 넣고 짜낸 후에 다시 끓였다가 식히면 굳어져 엿이 된다. 엿은 고기 시작하면 이튿날 새벽에 끝나는데, 옛날에는 糖分을 엿에서 얻었다.

또 이 날 엿을 고아 가지고 그 엿에다 볶은 콩을 먹기 좋게 문힌 콩강정을 만들며, 또 단술을 만드는데, 이는 정초에 세배 오는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다.

4. 歲時風俗에 따른 놀이

歲時 民俗놀이란 옛날부터 民間에 傳承되어 오는 여러 가지 놀이로서, 鄉土色을 지니고 傳統的으로 해마다 행하여 오는 놀이이다. 그 發生動機를 몇가지로 나눌 수 있다.⁷⁹⁾

첫째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疫神, 惡靈을 쫓아내기 위한 행사에서 발생되었다. 옛날 사람들은 病이나 재난을 惡靈의 짓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이러한 악령에 대해서는 굿을 하여 물리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것을 물리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북, 징을 쳐 울리면서 흉기(凶器)를 가지고 찌르는 시능을 出演하여 이른바 感染呪術을 하였던 것이다. '獅子놀이', '埋鬼놀이', '地神밧기' 등이 그러한 것이다.

둘째로 사람의 목숨을 延命시키는 穀物의 豐作을 祈願하는 행사에서 발생되었다. 祈願하는 마당에서 많은 수확의 시능을 하면서 이와 같이 열매 맺어 풍성하게 하여 달라고 豫祝의 행사를 하였던 것이다. '豐年밧기', '벼가릿대 쌓기' 등이 그러한 것이다.

세째로는 軍士 및 體力 단련에서 發生되었다. '石戰놀이', '햇불싸움', '그네뛰기', '널뛰기' 등이 그러한 행사 때에 행해졌다.

네째로는 無病長壽를 祈願하는 행사에서 발생되었다. '거북놀이', '다리밧기' 등이 그러한 행사 때에 행해졌던 것이다.

다섯째로는 豐作의 豐年과 凶年을 미리 알고자 하는 행사에서 발생되었다. '웃놀이', '줄다리기' 등이 그러한 것이다.

한양시대에 기록된 세시기에는 『경도잡지(1790년경)』, 『열양세시기』(1819년 발문), 『동국세시기』(1849년 서문)가 있고 이 무렵의 정학유가 지은 '농가월령가' 에도 기록이 있으며, 이보다 훨씬 앞선 지지로 『동국여지승람』(1530년)이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세시풍속과 놀이로 3월의 담청, 4월의 관동놀이, 하절(하절)의 탁죽놀이, 9월의 등고가 소개되었으며 후세의 세시기들에도 인용되어 있다.

1) 時節 및 傳承놀이

(1) 널뛰기

조선조 순조 때 李洛下는 '踏板詞' 에서

79) 崔常壽, 『한국민속놀이의 연구』, 성문각, 1985 참조

"마을 풍속에 해마다 정월서부터 계집아이들이 모여 긴 널판을 사용하여 가운데 짚베개를 놓고 형세에 따라 내려왔다 올라갔다 한다. 사람이 널 양쪽을 밟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오니 이것을 이르기를 널뛰기라 한다. 2월에 가서야 널뛰기가 그치니 신발은 짚신을 신지 않고 치마는 긴 치마를 입지 아니하였다." 80)고 기술하고 있다. 조선 시대 閨中 처녀들의 설날놀이 중 널뛰기는 매우 즐거운 놀이였다.

(2) 윷놀이

붉은 싸리나무 두 토막을 잘라 쪼개어 네 쪽으로 만든 것을 윷이라고 한다. 길이는 세 치 가량이다. 흑 콩같이 작게 만들기도 한다. 그것을 던져 내기하는 것을 윷놀이라고 한다. 네 개가 다 엮어지면 모, 네 개가 다 갖혀지면 윷, 하나가 엮어지고 세 개가 갖혀지면 걸, 세 개가 엮어지고 하나가 갖혀지면 도, 두 개가 엮어지고 두 개가 갖혀지면 개라 한다. 그리고 말판에 스물아홉 개의 점을 찍어 두 사람이 상대하여 던져서 각각 네 개의 말을 쓴다. 도는 한 발을 가고, 개는 두 발을 가며, 걸은 세 발을 가고, 윷은 네 발을 가며, 모는 다섯 발을 간다. 말판에는 돌아가는 길이 있고 곧장 가는 길이 있으며, 말도 빨리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함으로 내기를 결정한 다. 이 놀이는 명절에 가장 성행한다.

이는 단순히 놀이로서라기 보다는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 이를 통해 지상의 길흉 화복과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81)

(3) 石戰놀이

석전은 고구려시대 부터 기록이 보이며 조선시대에는 정월 대보름날에 각 지방에서 행하여 오던 남성의 놀이로서 '편쌈'이라고도 한다. 한자로는 邊戰·便戰이라고 쓴다.

『朝鮮王朝實錄』에는 太祖, 定宗, 太宗, 世宗대에 이 석전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세종 원년 3월에는 왕이 태조 시대에 있던 날쌌 편쌈隊가 폐지된 것을 걱정하고 어 명으로 석전을 부활시켜 석전 自發隊를 모집하였다.82) 이 모집에 응하는 자는 商工

80) 李洛下, 『路板詞』. 이 외 柳晩恭, 『歲時風謠』에서도 널뛰기 풍속을 묘사하고 있다.

81) 윷판은 원래 하늘의 별자리를 상징화한 것이다. 한 가운데 별은 樞星 즉 북두칠성의 첫째별이고, 이 별을 중심으로 늘어 선 별은 28宿이다. 윷의 둥근 부분은 하늘을 나타내며 반대편은 모진 땅을 상징한다. 윷이 네 개인 것은 땅의 수자이고, 그것이 조합하여 나오는 도, 개, 걸, 윷, 모의 5가지는 하늘의 수자이다. 이것을 가지고 말을 움직이면 그것은 곧 태양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가장 짧은 코스인 수-목-토-수의 진행은 동지로 해가 가장 짧다. 반대로 수-목-화-금-수의 진행은 하지로 해가 가장 긴 진행이다. 수-목-토-금-수의 진행은 춘분, 수-목-화-토-수의 진행은 추분이 된다. 윷이 서로 뒤바뀌는 것은 곧 음양이 교차되는 것과 일치하므로, 이로 인해 만물이 형성됨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정승모, 『세시의례와 조사방법』, 한국역사민속학회, 1995년 11월 발표요지 참조)

82) 『世宗實錄』 권12, 세종 3년 5월 乙丑.

賤隸일 경우 復戶시키고, 양가의 자제는 서용을 시키라고 하였다. 또 3년 5월에는 上王인 태종이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석전 구경을 하고 싶다 하여 특별히 兵制로 하여금 石戰軍 수백 명을 모집하게 하여 좌우 隊를 나누어 싸움을 붙이게 하여서 上王으로 친히 御覽케 하였다. 또 서울 사람이 단오에 석전을 하는데, 사람이 많이 상하였으므로 禁府에 명하여 그것을 금하였다. 그랬더니 대군들이 그 구경을 가서 盛勢를 도와준 까닭으로 싸움이 한층 더 커져서 사람이 많이 죽은 까닭에 憲府에서 문제 삼아 여러 宗親을 親鞫까지 했다 하였다.

三門(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밖과 阿峴 사람이 萬里재에서 돌을 던지며 서로 싸웠다. 속담에 삼문 밖 사람들이 이기면 경기도 안에 풍년이 들고, 아현 사람이 이기면 다른 도에서 풍년이 든다고 한다. 이 때 龍山·麻浦의 불량소년들이 結黨하여 아현쪽을 도왔다. 이 석전이 한창 심할 때는 함성이 천지를 울리는 것 같고, 이마가 깨지고, 팔이 부러져도 후회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당국에서는 왕왕 못하게도 하였다. 長安 아이들이 이를 본받기도 하고, 행인이 돌을 무서워하여 피하기도 했다.⁸³⁾

석전놀이는 우리 나라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어 고려와 조선조 초기에는 더욱 성행되었다. 석전은 요컨대 전쟁에 대비하는 鍊武의 큰 뜻을 갖는 전투적 놀이요, 또는 실전 연습의 놀이었다.

(4)답교놀이

다리밟기의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지봉유설』의 기록에 고려부터 시작되었다는 기사가 있기에 다만 고려시대부터로 추측할 뿐이다.

정월 대보름날 밤에 다리를 밟으면 일년간 다리에 병이 없고 재앙도 막을 수 있다 하여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행하였던 세시풍속이다.

조선후기에는 서울 근교에 남자들이 농악에 맞추어 무동을 세우고 여러 배역으로 분장하여 다리위나 마을에서 한바탕 놀이를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전하는 민속놀이로서 답교놀이이다.

서울 장안의 광통교(지금의 광교), 수표교, 염천교, 마전다리, 살곶이다리(현 한양대 옆) 등의 큰 다리가 있는 곳에서 일정한 격식을 갖춘 답교놀이가 형성되어 점차 확산되어 뚝섬을 지나 장안 6동과 송파, 돌마리(석촌동), 몽촌 등지의 큰 다리가 없는 지역에서도 정초 민속놀이로 더욱 성행되었다.

다리를 밟는 풍속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의하면 "정월대보름날 다리밟는 풍속은 고려 때에 시작되었는데, 남녀가 쌍쌍이 짝을 지어 밤새도록 다녔으므로 거리가 혼잡하게 되어, 이날 여자들의 다리밟기를 금하

83) 洪錫謀, 앞 책

기까지 하였다." 고 한다. 이리하여서 여자들은 16일 밤에 다리밟기를 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는 다리밟기가 얼마나 성행했는가를 알 수 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일부 양반들은 번잡함을 싫어하여 하루 앞당겨 14일 밤에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흔히 '양반다리밟기'라 하였다.

『경도잡지』에는 달이 돋은 후에 도성 사람들이 모두 종가(지금의 종로)로 나와 종 소리를 듣고 흩어져 여러 다리를 밟으면서 다리병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암축했는데, 이것이 가장 성행했던 곳이 대광통교, 소광통교, 수표교이다. 이날 밤에는 관례적으로 통행금지가 완화되어 사람들이 폐를 이루어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며 소란했으며, 사람들이 모여서 성황을 이루었다 한다.

또한 『열양세시기』(열양세시기)에는 서울에서 정월 초 하룻날 밤에 열두 다리를 밟고 지나가면 그 해 열두달의 액을 막는 것이라 하고 재상귀인에서 여항의 서민들까지도 노병을 막는다고 해서 다리밟기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출동한 마차와 가마 등 거느린 장구가 거리를 막았으며, 물병과 물그릇을 소지한 무리가 모여들어 한밤중 성중에는 성황한 놀이었다. 다른 기록과 달리 『열양세시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열두 다리를 밟는다고 명시한 것과 4월 8일에도 답교를 했다고 한 것이다.

『동국세시기』에는 도성사람과 사녀들이 모여 열운가, 종각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 소리를 들으며 흩어져서 여러 다리로 가서 왕래하기를 밤새도록 하며 끊이지 않았는데, 이것을 답교라 하였으며, 혹 말하기를 교라는 말은 사람의 다리(脚)와 그 음이 같이 발음되는 속설에서 나왔다고 했다. 이렇게 다리를 밟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다리병이 없다고 했으며 여기에서도 대소광통교와 수표교에서 가장 성황이어서, 사람으로 바다를 이루고 성을 쌓은 것 같았다고 한다.

(5) 花柳놀이

꽃과 버들은 3월이 한창이니 날이 화창하고, 마른 나뭇가지에는 새싹이 돋고 산과 들이 푸르고, 붉은 꽃들이 피기 시작하며 사람들은 어느 하루를 택하여 물 있고, 꽃 있고, 경치 좋은 산으로 간다. 대개 늙은이는 늙은이들끼리, 젊은이는 젊은이들끼리, 부인네들은 부인네들끼리 한 패를 지어서 놀이를 가는데, 이것을 화류놀이라고 하는 것이며, 지방에 따라서는 화전놀이·꽃놀이·꽃다림이라고도 한다.

『동국세시기』3월조에는 진달래꽃을 따다가 참쌀가루에 반죽하여 둥근 떡을 만들고 그것을 기름에 지진 것을 '화전'이라 한다 하였고, 『열양세시기』3월조에도 서울의 버들과 꽃은 3월이 한창이다. 남산 蠶頭와 북한산의 彌雲臺와 洗心臺는 놀이하는 이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고 안개같이 자욱하여 한 달 동안 줄어들지를 않았다고 하였다.

(6) 觀燈놀이

4월 8일은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부처님 오신날'이라고 하여 불교신자들은 새 옷을 갈아입고서 부근의 절로 가는데, 전국 각 지방의 절에서는 큰 齋를 올리고 각 殿閣에 등을 달고 불을 켜다.

이날 밤, 燃燈하는 燈籠의 형상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종류로서는 수박등·거북등·오리등·배(舟)등·항아리등·공등·종등·누각등·난간등·화분등·가마등·머루등·병등·방울등·바라등·수복등·태평등·만세등·남산등·그림자등 기타 여러가지가 있다.⁸⁴⁾

서울 시내의 등 가게에서 파는 등은 천태만상으로 오색찬란하고 값이 비싸며, 모양 또한 기이했다. 종가(종로)에는 이 등들을 보려고 사람들이 담벼락에 몰려 선다.

은 장안의 남녀들은 초저녁에 남북의 산기슭에 올라가 등을 달아놓은 광경을 구경한다. 혹 어떤 이는 악기를 들고 거리를 쏘다니며 논다. 그리하여 서울 장안은 사람의 바다를 이루고, 등불의 성을 만든다. 그렇게 떠들썩하게 밤을 새워 지낸다. 이때 장안 밖의 시골 노파들은 서로 붙들고 다투어 와서 반드시 남산의 蠶頭峰에 올라가 이 장관을 구경한다고 하였다.

(7) 水缶戲

4월에는 물동이에 바가지를 얹어 놓고 빗자루로 두드리면서 진실하고 솔직한 소리를 내는 것을 수부회(물장구)라 한다.⁸⁵⁾

이는 단순한 놀이 이상의 것으로 바가지를 두드리며 새로 태어난 아이의 무병장수를 비는 염원을 하거나 집안의 평안을 바라는 안택굿으로서 기능을 가졌다.

(8) 씨름

젊은이들이 南山의 倭場이나 北嶽山의 神武門 뒤에 모여 씨름을 하여 승부를 겨룬다. 그 방법은 두 사람이 서로 상대하여 무릎을 구부리고, 각자 오른손으로 상대자의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는 상대자의 오른다리를 잡은 뒤, 일시에 일어나며 상대자를 번쩍 들어 매어친다. 그리하여 밀에 깔리는 자가 지는 것이다. 內局·外局·輪起 등 여러 자세가 있다. 그 중에 힘이 세고 손이 민첩한 자가 연해 내기하여 연해 이기는 사람을 都結局이라 한다. 중국사람들이 이를 본받아 그것을 高麗技라 하기도 하고, 또 요교라고도 한다. 단오날 이 경기는 매우 성하여 서울을 비롯하여

84) 홍석모, 앞 책

85) 洪錫謀, 앞의 책

각 지방에서도 많이 한다.⁸⁶⁾

(9) 그네뛰기

그네뛰기는 추천놀이라고도 하여 우리 나라 단오절 행사 중 큰 놀이이다. 남성의 씨름놀이와 더불어 여성놀이로서는 가장 크고 또한 유명하다.

『京都雜誌』端午 조에 "閭巷婦女 盛爲秋千戲" 라 하여 "여염집 부녀자들이 그네 뛰기를 매우 성하게 한다고 한다"⁸⁷⁾ 고 하였다. 서울에서는 왕년에 南關王朝 앞과 東關王朝 앞 ·三清洞 ·社稷洞의 넓은 광장에서 그네뛰기가 대단했다.

(10) 投壺

투호란 병을 놓고 일정한 거리에서 두 편이 각각 한 사람씩 푸른 살과 붉은 살을 가진이가 열 두 개의 살을 가지고 하는데, 병 가운데 구멍이나 양쪽 귀구멍에 살이 콧콧이 서서 들어가도록 던져 많이 맞힌 수로써 승부를 결정하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오늘날 민간에 전승되어 오지 않는 놀이의 하나이다. 조선 시대에는 주로 궁중과 朝廷의 고관들이 耆老宴 잔치 때에 여흥으로 많이 하였다.

조정에서는 대양 3월 3일과 9월 중앙절을 기노연을 普濟樓에서 베풀며, 耆英會를 訓練院에서 베풀고, 모두에게 술과 음악을 나리었다. 기노연에는 前職 堂上官(正三品)이 가서 참례하고, 기영회에는 宗宰(大君 및 王子君)로 70세가 된 二品 이상과 正一品 이상 및 經筵堂上(正三品)이 가서 참례하였다.⁸⁸⁾ 禮曹判書는 모든 일을 고찰하여 연회를 관리하고, 承旨도 또한 명을 받들어 간다. 짝을 나누어 투호하여 이기지 못한 자는 술잔을 가져 오고, 이긴 사람은揖하고 서서 마신다. 樂章를 奏하고 술을 권하여 드디어 연회를 열고, 크게 絲竹(관현악)을 울리고 각각 차례로 술잔을 전하여 반드시 취한 뒤에 그친다. 날이 저물어 부축하여 나오니, 이 회에 참여함을 얻은 이는 사람들이 모두 영광으로 여겼다 한다.

(11) 登高

조선조 때의 기록을 보면 늦가을 중앙절을 맞아서 높은 산에 올라가 이 단풍을 즐기며 먹고 마시며 즐기는 풍습이 있었다. 사대부들은 옛 것을 사랑하는 관습으로 중앙절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단풍을 바라보면서 시를 짓는 작시놀이를 하였다. 서울

86) 洪錫謀, 앞 책

柳得恭, 앞 책

87) 柳得恭, 앞 책

88) 成俔, 『庸齋叢話』 권 9

丁若用, 『牧民心書』 禮典 6條, 『興學』에도 투호에 대한 기록이 있다.

풍속에 보면 일반인들도 중앙절이 되면 남한산과 북악산에 올라가 술을 마시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단풍놀이를 즐겼다. 이것은 모두 등고의 옛 풍습을 따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서는 등고라 했고 우리 나라에서는 重陽楓葉遊라 일러 온다.⁸⁹⁾

서울 근교의 중앙풍채유 놀이장소로는 淸楓溪(청운동 청운국민학교 뒷산)·後澗堂·南漢山·北漢山·道峰山·水落山 등이 유명하다.

2) 연희놀이⁹⁰⁾

(1) 陽州別山臺놀이

양주별산대놀이는 탈놀이의 일종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옛부터 탈놀이의 명칭을 황해도지방에서는 탈춤으로, 낙동강 서쪽 지방에서는 五廣大놀이로, 낙동강 동쪽 지방에서는 들놀음(野遊) 등으로 불려왔는데, 경기도 지방에서는 산대놀이라는 명칭이 쓰여 왔다. 산대놀이에는 양주 이외에도 송파산대놀이, 파주산대놀이, 포천산대박침지놀이, 등촌산대박침지놀이 등의 이름이 보이는데, 이들 중 양주 송파 이외에는 이미 전승이 끊어져 그 실제의 모습을 확인할 길이 없다.

산대는 일명 彩山 綵棚이라 하는 가설무대로서 주로 궁정에 설치하였으며, 거기서 백희가무를 연행하였고, 신라 진흥왕 이래의 팔관회와 고려시대의 연등회에서 開演되었다. 산과 같이 높은 무대, 비단으로 장식된 다락무대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인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산대색 혹은 연등도감이라는 관청에서 산대놀이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⁹¹⁾

고려의 산대놀이는 조선조에 계승되어 더욱 성행하였다. 한편 애초에 산대를 설치하고 놀지 않았던 궁중의 儺禮는 고려 睿宗이후 점차 본격적으로 연행예능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잡귀를 쫓는 연중행사는 역시 조선조에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종래의 산대놀이와 혼용되어 綵棚儺禮, 산대나례로 불릴 정도로 무대적인 공연성이 확장되었다.

조선조의 산대놀이는 規式之戲와 笑謔之戲로 분류되었다.⁹²⁾ 산대놀이는 한자어로 山臺戲, 山臺雜戲, 山臺都監戲, 山臺儺戲, 儺戲 등으로 불리었는데, 주로 중국

89) 洪錫謨, 앞 책

90) 산대놀이에 대해서는 徐淵昊, 『산대탈놀이』(열화당, 1987), 高橋亨, 「산대잡극에 대하여」 『朝鮮』(조선총독부, 1937), 이병욱, 『송파산대놀이 연구』(집문당, 1982), 윤광봉, 「18세기 한양을 중심으로 한 산대놀이 양상」 『문학작품에 나타난 서울의 형상』(한국고전문학회편, 한샘출판사, 1995)을 주로 참고하여 인용하였다.

91) 『高麗史』 志, 권 31, 백관 2.

사신을 영접할 때 공연되었으며, 그 밖에 나례의식 때, 왕의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왕이 종묘에서 제사지낼 때, 왕이 종묘에 참배할 때, 왕이 각종 행차 때, 왕후의 잉태를 축하할 때, 각종 궁중 잔치 때, 지방장관을 환영할 때 등에 공연되었다.⁹²⁾

산대놀이를 일명 산대도감놀이이라 한 것은 궁중에 놀이를 관장하는 부서인 산대도감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나례를 거행하기 위해 나례도감 역시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기관에서 운영하던 산대놀이는 경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仁祖 이후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다. 산대에 관한 기록은 正祖때까지 몇 차례 보이기는 하나, 이미 종래의 산대(무대)와 같은 궁중놀이로서는 그 명맥을 잇고 있지 못하였다.

『京都雜志』에서 "연극에는 山戲와 野戲의 두 부류가 있는데 나례도감에 소속된다. 산회는 다락을 매고 포장을 치고 하는데 사자, 호랑이, 만석중 등의 춤을 추며, 야회는 唐女와 小梅로 분장하고 논다."⁹⁴⁾ 는 이 기록은 때마침 산대놀이가 사라져 가던 정조 때의 언급으로 종래의 소학지회가 야외놀이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872년에 기술한 『敎方諸譜』에는 六花隊 이외 14종의 춤 속에 僧舞가 들어 있고, 잡희 가운데 焦爛(초라니), 산대, 醉僧 등이 포함되어 있다. 승무의 내용을 보면 기생을 사이에 두고 노승과 풍류랑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각기 기생을 비단신으로 유혹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된다. 상좌도 등장하여 노승을 돕는다. 초라니는 가면을 쓰고 노는 잡희이고, 산대는 양반, 중, 미녀 등이 역시 가면을 쓰고 노는 것으로 되어 있다. 취승은 격렬한 춤을 추며 논다 하였다.⁹⁵⁾

산대놀이꾼들의 주거지는 사직골, 남대문 밖의 큰 고개, 서소문 밖의 애오개, 녹번리, 구과발 등지였다. 公儀가 있을 때에는 궁중에 들어가 연희하였는데, 산대놀이가 폐지되자 각자의 주거지를 근거로 분산하여 새로이 놀이패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선조 후기에 한양과 경기 일원에서 활약한 놀이패가 녹번리산대, 애오개산대, 사직골딱딱이패, 노량진산대, 퇴계원산대 등이다. 이들은 각기 경향 각지를 순회 공연하였다. 사월 초파일, 오월단오, 유월 유두, 칠월 백중, 팔월 추석과 대소 명절 때 흥행 요청에 의하여 혹은 단독으로 또는 사당패나 다른 놀이패와 어울려 서민들의 흥을 돋우며, 일면으로는 점증하는 민중들의 사회의식을 표현하면서 밑바닥 인생으로 어렵게 생존하였다. 이들 중 특히 구과발산대는 1920년대 말엽까지 놀이본의 채록이 가능할 정도로 그 전승이 끊이지 않았고, 노량진산대는 1930년대 초에 복원되어 일시적으로 논 적도 있었다.⁹⁶⁾

92) 『朝鮮王朝實錄』 文宗 元年 6월.

93) 李杜鉉, 『韓國演劇史』, 학연사, 1985, 86-87쪽 참조.

94) 柳得恭, 앞 책

95) 서연호, 앞 책, 29쪽 참조.

양주에서 탈놀이가 성립되고 지속적인 전통을 이을 수 있었던 배경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⁹⁷⁾ 첫째로는 도시 경제적인 기반을 들 수 있다. 양주는 행정 상업 교통의 중심지로서 인근의 다른 촌락에 비하여 경제적인 여건이 유리하였기에 놀이에 필요한 비용과 놀이패의 생활비의 염출이 그런대로 가능하였다.

둘째로는 옛날 한성 주변에 왕성했던 산대놀이의 영향이다. 양주탈놀이의 선행 예능이라 할 수 있는 산대놀이는 국가적인 행사에서 공의로서의 역할을 했던 세련된 수준과 민간의 사회의식을 가장 전형적으로 반영해 주는 양식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관중들의 커다란 호응을 받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놀이가 세시풍습이나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점도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양주의 탈놀이는 매년 행사로 음력 삼월 삼일의 삼진날, 사월 팔일의 초파일(국사당제를 지냈다), 오월 오일의 단오(성황당제를 지냈다), 팔월 십오일의 추석, 구월 구일의 단풍놀이 등에서 놀았고, 그 이외에는 젊은이들의 봄놀이와 가뭄 때의 기우제에서도 놀았다. 관아에서는 제석에 가면을 쓰고 동헌 육방을 돌며 잡귀신을 쫓으며 평안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탈놀이가 세시풍습이나 종교적인 의식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공연물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양주탈놀이의 놀이판은 사직골(방언으로 새젓골이라 한다)이었는데, 그곳에는 사직당이 있었고 그 당집 앞의 넓은 마당에서 공연하였으며, 관중들은 당집 주변의 비스듬한 산비탈에서 구경하였다 한다. 토신이나 곡신을 제사지내던 사직골에서 탈놀이가 공연되었음은 한편으로 놀이의 신앙적인 측면을 알게 해 준다.

(2) 松坡山臺놀이

조선후기의 송파는 전국 15대 향시 중의 하나로 서울 경기 일원의 중요한 상업지역이었다고 하는데 한강을 오르내리는 수운으로 강원도까지 배가 내왕하였고, 육운으로 마행상들이 전국을 돌았던 곳으로 장날이면 마행상인과 선원들이 들끓어 송파 장에는 270여호의 객주집이 성업성시를 이루었다. 5일장에서 본장날은 하루이지만 전일과 후일에 모여들고 실어 나가는 화물과 상인으로 사흘동안 붐볐다. 특히 서울로 공급되는 경기미, 숯, 연초, 소(牛), 채소, 곡식 등이 모두 이 송파 나루터를 건넜으며 심지어는 '임금님께 진상하는 풀단지도 송파를 거친다'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다.

1754년(영조 30년)에서 1758년(영조 34년) 사이에 송파장이 조정에서 큰 문제가

96) 宋錫夏, 『韓國民俗考』, 일신사, 1960, 244쪽 참조

97) 서연호, 앞 책, 33~35쪽 참조

되었다. 평시제조 홍상한이 조정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서울의 간사한 무리들이 송파에 살고 있는 부랑자들과 작당을 하여 각종 물화를 모아 시장을 크게 열었다. 삼남과 동북지방의 장사치들을 유인해서 마음대로 사고 판다.'⁹⁸⁾ '서울근처의 시장은 사평, 광나루, 누원, 금암 등지에도 있지만...송파가 가장 심하다. 이곳에 사는 백성들의 무리들이 서울 안팎의 젊은패 및 난전군들과 결탁하여 삼남, 북도, 영동의 상인을 유인해 모두 이곳에 모인다.' '명색은 한달에 여섯번 장을 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각 전의 물건들을 마을에도 쌓아 두고 매일 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洪象漢은 송파장이 서울 시전의 특권적 상업에 위협을 주니 시전을 보호하기 위해 송파장을 폐지하자고 주장했으나 그의 주장은 관철되지 않았다.

그 후에도 송파장에서 서울로 가는 어물을 독점해 값을 마음대로 조정한다고 몇 차례 문제가 되었다.⁹⁹⁾ 요컨대 송파는 각 지방 상품을 집결시켜 항상 개시하는 상업 도시였고, 서울의 특권적 상업에 위협을 주는 서울 근교 상업도시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강한 곳이었다.¹⁰⁰⁾

송파산대놀이는 이런 기반 위에서 성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번창할 즈음의 장판에는 되쟁이, 마쟁이(되나 말로 곡식을 되어 주는 직업), 임방꾼(배에 화물을 싣고 푸는 직업), 잡심부름꾼, 술집, 운송점(마루하치: 화물창고와 주문처), 선원, 연초가공, 薪炭商, 牛市場 등으로 갖가지의 직업과 거부, 거상 등이 많아 그들이 추렴하는 기부금으로 매년 대소명절과 장날에 씨름붙이고, 광대 줄타고, 산대놀음판을 벌일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 있었다.

정초, 초파일, 단오, 추석 등 연간 3, 4회 탈판을 펼쳤는데, 그 중 칠월 백중이 가장 큰 판으로 일주일 정도 놀았다. 놀이는 대체로 밤을 이용하였으나 장꾼들을 위해 낮에 놀기도 하였다. 길놀이는 장마당을 중심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쌍호적, 징, 장구, 제금 등을 앞세우고 탈과 의상을 갖춘 놀이꾼들이 첫상좌부터 등장 순으로 행진하였다. 원숭이는 줄에서 이탈하여 우스운 짓을 하고, 신장수는 채찍을 든 채 춤을 추며, 왜장녀는 허리 부분을 드러내 놓고 엉덩이춤을 추었다. 노장은 양어깨에 소무를 하나씩 끼고 점잖게 걸었다. 행진 도중 마을의 어귀, 공터 등지에서는 한바탕 놀이판을 벌이기도 하였다. 길놀이는 행사를 알리는 광고 겸 마을의 안녕과 興業을 기원하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

양주나 송파는 서울 주변의 큰 장이 서는 곳으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히 많은 서민들이 모일 수 밖에 없는 곳이었다. 신분제사회 속에서 성숙된 일반 서민들

98) 『備邊詞牘錄』 127冊, 英祖 30年 11月 28日.

99) 『備邊詞牘錄』 127冊, 純祖 7年 1月 23日.

100) 趙東一, 『韓國假面劇의 美學』, 한국일보사, 1975. 65~66쪽

의 상층문화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식은 탈놀이의 발전과 지속성을 가져 오게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조선후기의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민의 의식은 높아 갔으나 다른 측면에서의 지배층의 부조리와 타락, 서민들에 대한 횡포와 억압은 민의 사회의식을 점증시켰다. 이러한 비판적 저항적 사회의식은 도시적 분위기 속에 살았던 상인층과 그 곳의 관아 주변에서 양반들의 영향력을 항상 직접적으로 받아야 했던 잡역부나 관노들에게서 강하게 있었다고 하겠다. 관리들에게 항상 수탈을 당해야 했던 상인들과 인간적인 천대를 받아야 했던 하층민들로서는 탈놀이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의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표출하였던 것이다.

5. 맺음말

조선시대는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성립하였기 때문에 불교와 고려적인 요소를 유교체계 속의 五禮 통하여 제거하고, 그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오래 중 길례는 세시의례에 속한다. 그리고 그 세시의례는 大·中·小祀로 나뉘어 주로 국가의 수도인 서울에서 행해졌다.

고려시대의 행사인 팔관회·연등회를 폐지하고, 고려 길례 소사인 풍운뢰우를 중사에, 고려에서 제외된 산천신인 우사에 편입하고 성균관의 석전례와 같이 유교의 교화를 중시하는 것은 유교이념에 근거를 두고 보다 유교이념에 접근하려는 정치적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례의 참여는 왕실중심에서 사대부에까지 확대 포섭하였다.

서울의 세시풍속은 국가, 왕실, 사대부, 서민의 풍속을 망라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정초의 사직제, 종묘향, 석전제 등의 大·중·소사는 국가의 의례이고, 정조하례, 인일 동인승 올리기, 동지 달력올리기, 절일제의 과거, 2월 초하루 중화척 내려 주기는 국왕과 신하와의 풍속이다. 정초의 문안비보내기 등은 사대부 풍속이다.

서울의 세시풍속으로 장관인 것은 대보름의 석전인데, 三門(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밖과 阿峴·龍山·麻浦의 소년들의 석전은 풍년을 점치는 것인 동시에 練武의 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정월 대보름날 밤의 답교놀이는 다리를 밟으면 일년간 다리에 병이 없고 재앙도 막을 수 있다 하여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행하던 세시풍속이나, 서울은 장안의 광통교(지금의 광교), 수표교, 염천교, 마전다리, 살곶이다리(현 한양대 옆) 등의 큰다리가 있는 곳에서 일정한 격식을 갖춘 답교놀이가 형성되고 점차 확산되어 뚝섬을 지나 장안 6동과 송파, 돌마리(석촌동), 몽촌 등지의 큰 다리가 없는 지역에서도 정초 민속놀이로 더욱 성행되었다.

화류놀이로 필운대의 살구꽃, 북둔의 복사꽃, 홍인문 밖의 버들이 유명해서 삼월 삼짇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겼다.

4월 초파일에는 온갖 등을 만들어 집에 달아 놓은 것을 남산의 잠두봉에 올라가 보는 것이 장관이다. 유교적 사회에서도 석탄일은 사대부, 상민 가릴 것 없이 세시 풍속으로 즐겼다.

서울 근교의 중앙풍채유 놀이장소로는 淸楓溪(청운동 청운국민학교 뒷산)·後澗堂·南漢山·北漢山·道峰山·水落山 등이 유명하다. 이는 등고의 옛 풍습을 답습한 것이다.

세시놀이는 주로 穀物의 豐作을 祈願하거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疫神, 惡靈을 쫓아 無病長壽를 祈願하는 목적으로 행해졌으나 서울에서는 이런 세시 놀이가 연희화되어 남아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주와 송파에서의 산대놀이이다.

양주와 송파에서의 놀이가 성립되고 지속적인 전통을 이을 수 있었던 배경은 행정 상업 교통의 중심지로서 인근의 다른 촌락에 비하여 경제적인 여건이 유리하였기에 놀이에 필요한 비용과 놀이패의 생활비의 염출이 그런대로 가능하였던 데서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 산대놀이에 있어 儺禮儀式의 잔존인 驅儺舞를 통한 除災招福의 염원, 양반 및 승려의 타락을 풍자하고 상민들의 생활고를 토로하는 등의 내용이 고단한 민중의 마음을 카타르시스화 시켜주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참 고 문 헌

-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東國輿地勝覽』
『春官志』
『太學志』
李睟光, 『芝峯類說』
柳得恭, 『京都雜誌』
金邁淳, 『列陽歲時記』
洪錫謨, 『東國歲時記』
-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속대관』 4,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82
김광언, 『민속놀이』, 대원사, 1990
김성원, 『한국의 세시풍속』, 명문당, 1994
김옥동, 『탈춤의 미학』, 현암사, 1994
김의숙,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 집문당, 1993
김일출, 『조선 민속 탈놀이 연구』, 과학원 출판사, 1958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민속학회 편, 『가면극·세시풍속·산육속』, 교문사, 1990
_____,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4
法制處 편, 『국조오례의』(1), 法制處, 1981
서연호, 『산대놀이』, 열화당, 1990
서울특별시 편, 『서울민속대관』, 서울특별시, 1993
손인수, 『한국의 교육세시풍속』, 문음사, 1991
심우성, 『한국의 민속놀이』, 삼일각, 1975
안길모, 『불교와 세시풍속』, 명상, 1993
이병옥, 『송파산대놀이 연구』, 집문당, 1982
이석호 역, 『조선세시기』, 동문선, 1991
임동권, 『한국세시풍속연구』, 집문당, 1993
장정용,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연구』, 집문당, 1988
최상수, 『세시풍속』, 서문당, 1988
_____, 『한국민속놀이의 연구』, 성문각, 1985

____, 『산대 성황신제 가면극의 연구』, 성문각, 1985

최창렬, 『아름다운 민속어원』, 동아출판사, 1989

한국고전문학연구회 편, 『문학작품에 나타난 서울의 형상』, 한샘출판사, 194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대백과사전』, 1991.